

소사벌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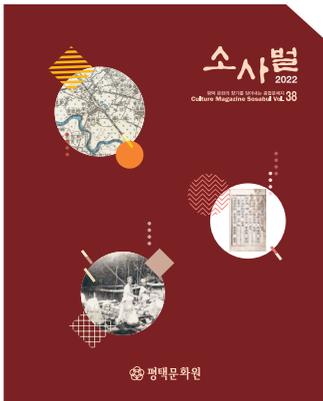
평택 문화의 향기를 담아내는 종합문예지
Culture Magazine Sosabul Vol. 38



소사벌

2022

평택 문화의 향기를 담아내는 종합문예지
Culture Magazine Sosabul Vol. 38



2022년 10월 / 통권 제38호

발행인 평택문화원장 이보선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신태식
위 원 박성복, 강기중, 김희경, 이형범, 홍인석
편집 오민영, 최치선, 황수근, 최희련
발행처 평택문화원
발행일 2022년 10월 22일
주소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7
전화번호 031-655-2002
전송 031-654-8807
홈페이지 www.ptmunhwa.or.kr
출판 나무기획 031-654-0104

© 2022 평택문화원 ISSN 1739-9556

- ※ 이 책의 게재 내용은 평택문화원의 정책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이 책은 평택문화원의 동의 없이 무단전제와 복제를 금합니다.
- ※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 ※ 이 책은 평택시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기획특집
**조선시대 평택의
 사회와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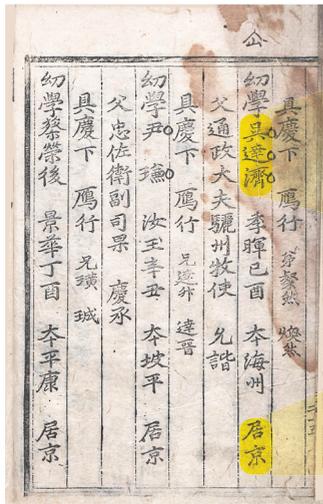
- 04 족보, 읍지 그리고 조선시대 평택의 역사
- 08 조선후기 장시의 발달 속 평택
- 12 조선시대 평택 토산물

평_平채우다

- 16 빛바랜 사진이야기
- 20 평택문화를 반추하다
- 24 평택을 품은 이야기
- 28 여기는 평택이다
- 32 일제가 금지한 노래책, 『근화창가』
- 34 장애인역사들의 끝없는 열정!
- 38 서정리초 백년의 기억
- 42 평택 아카이브展
- 46 철강공장의 재탄생 mM Artcenter
- 50 평택시민을 품은 공간
- 54 우리지역 문화예술인 민화작가
- 58 시간 그리고 도시와 재생

택_澤더하다

- 62 2021 평택 향토사 구술 및 사료조사
- 66 사라지기 전, 그리움을 남기다
- 70 지역문화 열정이 담긴 시간
- 74 느끼고 즐기고 표현하라
- 80 미션! 용이동 청동기 유적지
- 84 평택문화원 CAFE
- 88 평택막걸리로드
- 94 2022년 평택문화원 기증유물
- 96 평택문화원 소개



사마방목에서 오달제

吳達濟

오달제

居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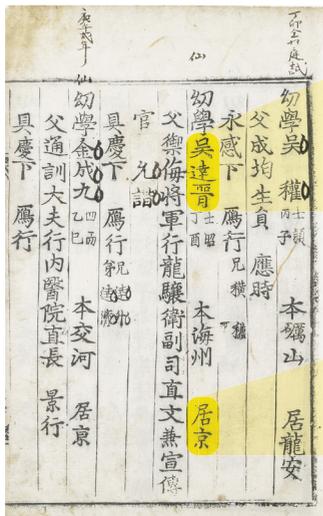
거경한양(거주)

평택의 이충동(二忠洞)이란 지명은 조선시대 유명한 두 명의 충신이 살았던 곳이란 뜻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중종대 정치개혁을 시도하다가 사화(士禍)로 좌절한 조광조, 병자호란 당시 결사항전을 주장하다가 전쟁의 책임을 지고 청나라로 끌려가 처형당한 오달제가 바로 그들이다. 이들을 기념하는 충의각이 지금도 이충동에 남아 있다. 하지만 조선시대를 대표할만한 이 두 명의 충신이 평택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련 맺고 있는지 정확히 알려진 내용이 없다. 심지어 충의각에 대해 설명하는 가장 오래된 자료 가운데 하나인 진위읍지 역시 매년 추석에 이 비석에 제사를 지내지만 언제부터 그래왔는지는 알지 못하겠다고 적고 있다.

이충동에 살았다고 알려진, 조광조는 1510년 진사시에 붙을 때나 1515년 문과에 합격할 때, 자신의 거주지를 조선시대 이충동이 속해 있던 진위현이라 하지 않고 서울(京)이라 기록하였다. 오달제도 마찬가지였다. 오달제뿐 아니라 문과에 급제한 큰형 오달승, 그리고 진사시에 입격한 작은 형 오달진 모두 합격자 명단인 방목에 거주지가 서울로 기록되었다.

따라서 실제 조광조, 오달제가 평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그 가족과 선조들의 혼인 관계를 뒤져보아야 할 것이다. 17세기까지도 처가살이가 흔했기 때문에, 조선 후기 양반들은 외가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오달제가 어린 시절을 이충동에서 보냈다는 정보는, 그의 외가인 수성최씨들이 일찍부터 수원과 화성을 비롯한 평택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지금은 조선시대 평택에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어려운 형편이다. 그들의 삶과 이야기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이곳에 살면서 자료를 남긴 사람들의 삶의 행적과 그들의 관계를 씨줄과 날줄처럼 맞춰갈 필요가 있다. 그들이 어떻게 평택으로 이주하게 되었는지, 누구와 혼인했는지, 얼마나 많은 관직자를 내었는지 등을 확인한다면, 이들이 조선시대 평택 지역 사회에 미친 영향을 가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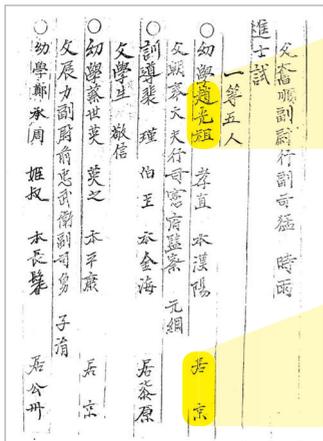
사마방목에서 오달진

吳達晉

오달진

居京

거경한양(거주)



사마방목에서 조광조

趙光祖

조광조

居京

거경한양(거주)

조선시대부터 평택 지역에서 대대로 살아온 가장 유력한 성씨 중 하나는 임진왜란 당시 순절한 원균을 배출한 원주 원씨일 것이다. 그러나 평택의 대표 성씨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원주원씨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그 영향력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는 바로 족보이다. 원주원씨삼사공파 족보에서 원균의 부친 원준량으로부터 그 6대 후손들까지 배우자의 성씨가 확인되는 자들을 모아보니 90명에 달했다. 이들은 무려 53개 성씨와 혼인하였는데, 3회 이상 혼인한 성씨는 6

개에 불과하다. 특히 무려 15회 혼인한 전주이씨를 비롯하여 경주이씨, 광주이씨, 동래정씨, 파평윤씨는 평택의 주요 성씨로 언급되는 성씨이다. 따라서 원주원씨는 매우 넓은 혼인 관계망을 가지면서도, 주로 왕족의 후손이자 경기 남부 지역에 널리 퍼져 거주하던 전주이씨, 그리고 지역의 주요 성씨들과의 혼인을 선호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주요 성씨들의 족보를 비롯한 문중 자료는 조선시대 평택 향촌 사회를 알아보기 위한 기초로서, 지속적으로 수집되고 분석될 필요가 있다. 이 기초 위에서 평택 사회를 주도하던 지배층의 네트워크까지도 재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p>子均 字平仲中宗庚子正月初五日生 登武科官資憲大夫三道水軍統 制使宣祖丁酉七月十六日殉節 于永登浦贈效忠仗義追毅協力 宣武功臣崇祿大夫議政府左贊 成兼判義禁府事原陵君策勳一</p>	
<p>子任 正月廿四日生以子 俊良初四日奉以去 後良初四日奉以去 其母姓劉氏如大 其母姓劉氏如大 其母姓劉氏如大</p>	<p>子遂良 配金州李氏安遠城君 其母姓劉氏如大 其母姓劉氏如大 其母姓劉氏如大</p>
<p>子俊良 十二月十八日生學武 其母姓劉氏如大 其母姓劉氏如大 其母姓劉氏如大</p>	<p>子均 字平仲中宗庚子正月初五日生 其母姓劉氏如大 其母姓劉氏如大 其母姓劉氏如大</p>
<p>女李良師 配全州人文輝</p>	<p>子士翼 五七</p>
<p>女李文益 六六</p>	<p>子士立 五七</p>
<p>女曹明勛 六七</p>	<p>子士達 五七</p>
<p>女趙廷堅 六九</p>	<p>子士雄 六七</p>
<p>女士雄 六七</p>	<p>女士立 五七</p>

《원주원씨족보》(1958)에서 원균(元均)

子均
字平仲中宗庚子正月初五日生
登武科官資憲大夫三道水軍統
制使宣祖丁酉七月十六日殉節
于永登浦贈效忠仗義追毅協力
宣武功臣崇祿大夫議政府左贊
成兼判義禁府事原陵君策勳一

振威素沙成歡驛
八
三十三
二岐
西
平澤
二十

<p>京 銅雀津界川葛山彌勤堂 南 舊本倉 西南 鳩浦 南陽 露梁始興彌勤堂 賜大隅安山 天安金溪驛德坪車嶺廣亭毛院公州敬夫驛魯城菴蒲橋沙橋 南抵統營別路芬六南至濟州西南至忠清水管同見</p>	<p>振威素沙成歡驛 八 三十三 二岐 西 平澤 二十</p>
--	---

《이정표》 중 서울에서 진위-소사-평택을 지나는 경로

조선시대 평택의 역사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평택에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뿐 아니라 평택을 거쳐 간 사람들의 이야기도 필요하다. 조선시대, 오늘날의 평택 지역은 경기도와 충청도가 만나고 작은 군현들이 서로 맞닿아 있던 경계지였으며, 주요 교통로와 항로가 지나던 길목이었기 때문이다. 평택을 거쳐 간 사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꼽자면, 아마도 중앙에서 파견되어 평택 지역을 다스린 지방관들, 수령들이다. 하지만 평택을 거쳐 간 지방관들의 명단은 아직 작성된 적이 없다.

이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평택과 관련이 있는 읍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읍지란 각 지역의 정보와 역사, 사람들을 지역의 관점에서 정리한 자료이다. 1991년 평택문화원이 편찬한 향토자료집(제1집)은 진위현의 1843, 1891, 1899년 읍지와 오늘날 평택시에 그 일부가 편입된 양성군의 1899년 읍지를 소개한 적이 있다. 향토자료집이 소개한 4종의 읍지 가운데 해당 지역을 다스렸던 수령들의 명단, 일명 선생안(先生案)을 담고 있는 것은 1899년의 양성군지 뿐이다.

그러나 평택 지역사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읍지는 그 외에도 많다. 1871년 편찬된 경기읍지 가운데 진위현의 읍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1899년 편찬된 여러 진위읍지 판본들 가운데는 향토자료집이 소개한 읍지보다 그 내용이 훨씬 풍부한 것들도 존재한다. 또 1895년과 1899년에

편찬된 호서읍지에는 조선시대 충청도 평택현의 읍지인 팽성지가 실려 있다. 그 외에 수원부나 직산현에서 편찬된 읍지들까지 고려한다면, 오늘날 평택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조선시대 읍지는 그 수가 더 늘어난다. 여러 읍지를 활용한다면, 평택을 거쳐 간 지방관들의 명단도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중에는 역사에 흔적을 남긴 이름들도 보인다. 현감으로서 역할과 천주교 신앙 사이에서 고민하던 이승훈, 조선 양명학의 대가로 알려진 정제두, 23년 동안 5번이나 영의정을 지낸 것으로 유명한 정태화의 아우 정만화, 대원군대 재상에 올라 대원군과 고종의 개혁을 보좌했던 강로 등은 모두 평택현감을 지낸 인물들이다. 서애 류성룡의 제자로 임진왜란 당시 의병으로 활약했던 조광벽, 광해군이 폐서인을 만들었던 인목대비의 오라비 김래는 진위현령이었다. 이들은 평택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 평택을 거쳐 간 수령들과의 관계 역시 평택이 가진 중요한 역사적 자산이다.

여러 지역이 맞닿아 있던 경계지이자 주요 교통로가 지나던 조선시대 평택에는 그 어느 지역보다 다양한 사람들과 소식이 오갔을 것이다. 그리고 족보와 읍지는 조선시대 평택 사회와 사람들은 물론 거쳐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또 다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소사별**



조선후기 장시의 발달과 평택 소사장

박 범 공주대학교 교수



조선후기 장시의 발달은 경제사적 관점에서 상업의 진전과 상품화폐의 유통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역사지리적 관점에서 본다면 지역 정체성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평택의 동쪽에 자리한 안성 지역은 조선후기 중요 장시였던 안성장이 위치하여 삼남 지방에서 서울로 가는 내륙 유통의 중심지 기능을 담당했다. 평택의 서쪽에 자리한 아산만 포구였던 공세포, 백석포, 둔포는 해양과 내륙을 연결하는 거점 구실을 하였다. 평택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평택 지역의 역사지리적 위상은 작지 않았다. 평택 지역

의 대표적인 장시였던 소사장은 둔포장과 안성장의 중간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이들 장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였다. 광역 단위의 시장권을 형성하지는 못하였지만 18세기 이후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장시가 끊기지 않고 존속했다. '소사와 관련된 지명의 변화는 그러한 사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소사장은 평택역의 부설과 더불어 전통 상업 구조가 근대화 단계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는지 평택의 경제상을 알 수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평택 지역의 장시 현황을 알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자료는 18세기 후반 간행된 《동국문헌비고》이다. 이 기록에 따르면 소사장을 비롯하여 안증장, 오타장, 석현장, (진위)읍내장, 구거리장, (평택)읍내장이 존재하였다. 당시 평택 지역의 장시는 대부분 안성장시권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안성의 장날 있던 2일과 7일에 개설되는 장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19세기에 이르면 평택 지역의 상업 경제가 많이 변화하였다. 19세기 전반의 장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임원경제지》에 따르면 18세기 후반까지 개설되었던 수원에 자리한 안증장, 오타장, 석현장과 진위에 있던 읍내장, 구거리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평택 지역의 장시로는 양성의 소사장, 진위의 신장, 평택의 읍내장, 직산의 안증장이 확인된다. 소사장에는 거래 물목이 나와있지 않으나, 진위 신장의 경우 미곡, 면포, 생닭, 인석(茵席), 연초(煙草)가 거래되었다고 하며, 평택의 읍내장에는 쌀, 콩, 보리, 면포, 마포, 연초, 송아지 등이 장시 물목으로 확인된다.

20세기 초가 되면 평택 지역의 장시는 크게 세 곳으로 압축되어 나타났다. 안증장, 평택장(평성읍), 소사장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장시가 소사장이었다. 19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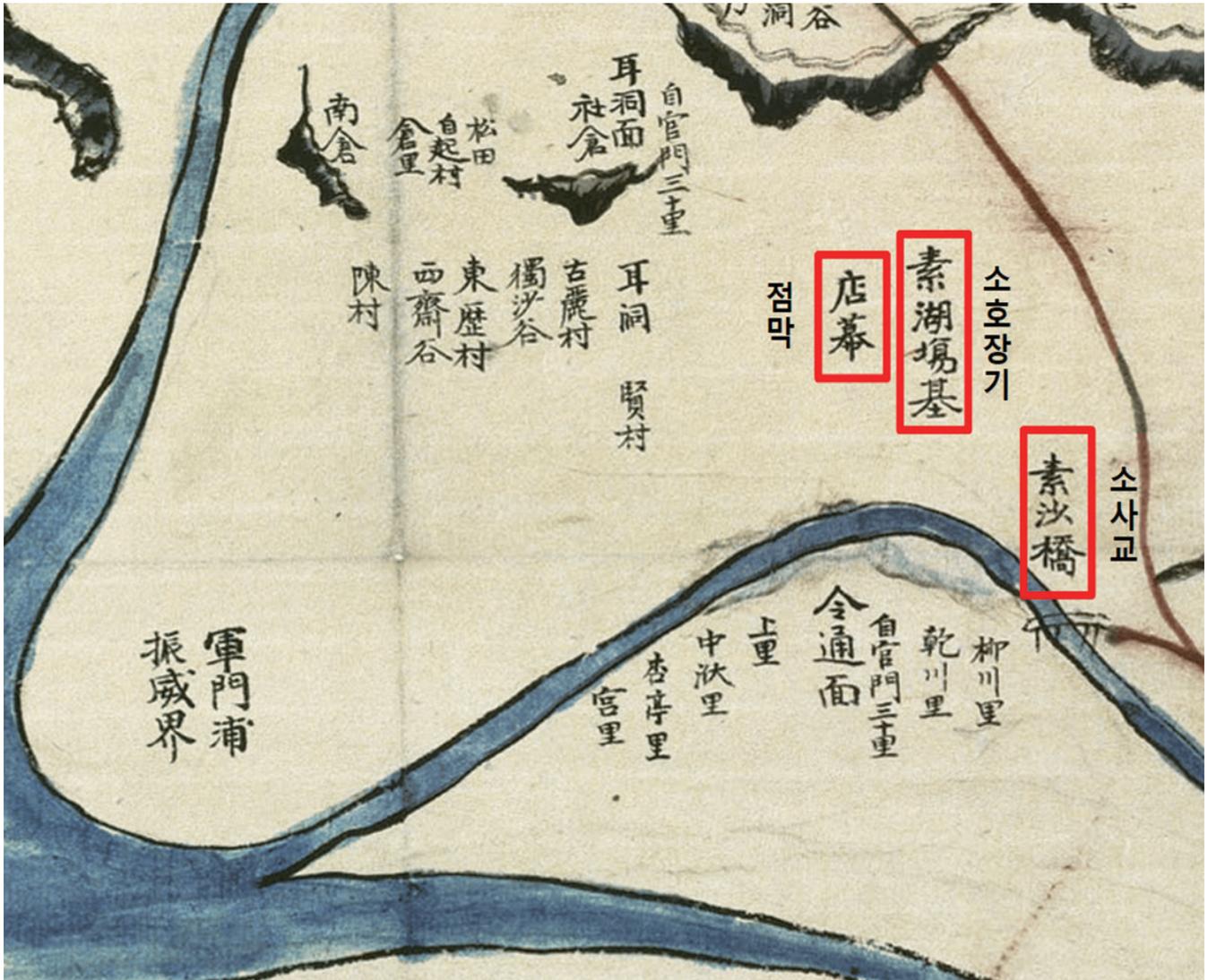


《해동지도》양성현지도

탁지부가 작성한 《한국각부군시장상황조사서》에 따르면 장시에 모이는 물품으로는 주로 미곡과 소가죽이 주류를 이루며, 안성과 진천 방면으로 물품이 거래된다고 한다. 평택장과 안증장이 장시가 개설될 때마다 600원과 500원이 거래되는 반면 소사장에서는 700원 이상의 물품이 거래되었다. 그러므로 18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평택의 가장 중심 장시는 소사장이라고 할 수 있다.

소사장은 조선후기 기준으로 양성현 영통면에 위치하고 있었다. 소사장의 영향력은 '소사'라는 명칭을 통해 알 수 있다. 소사의 명칭은 소초원(所草院)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인다. 16세기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소초원은 양성현의 역원으로 현 남쪽 30리 지점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소초원이 소사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은 17세기 전반으로 유형원이 지은 《동국여지지》를 보면 그러한 사실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 《동국여지지》에서는 “소사원은 소초원이라 부르기도 한다. 현 남쪽 30리에 있다”고 기록하였다. 또한 하천명의 명칭으로 소사천도 확인된다. '소사'라는 명칭은 이제 원명(院名)에서 천명(川名)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소사'라는 명칭은 들명으로도 쓰였다. 이러한 사실은 양성현이 아닌 직산현조에 보인다. “소사평은 혹 흥경평이라고도 한다. 현 북쪽 40리에 있다. 서쪽으로 평택현에 이르고 북쪽으로 경기 수원부의 신영장 및 양성현 소사원에 이르는데 평평하고 넓은 땅이 30여 리는 된다. 혹 소초평이라고도 한다. 양성현에도 보인다”고 하였다. 소사평이 소초평이라도 부른 것으로 보아 이 들명은 이미 오래 전부터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지명은 18세기 중반에 그려진 《해동지도》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소사교와 소사주막, 소사대수가 확인된다.



1872년 지방지도에서 보이는 소사장

장시명으로서 소사장은 1872년 지방지도에서 확인된다. 이 지도에는 소사교, 소호장기, 점막 등이 보인다.

위 지도를 보면 서울에서 내려오는 호남대로는 양성현을 지나 소사교를 통해 남쪽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호남대로 중간을 보면 소사교를 지나기 전에 '소호장기(素湖場基)'를 볼 수 있다. 소호장의 터로 볼 수 있는데 소호장은 소사장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왜 소호(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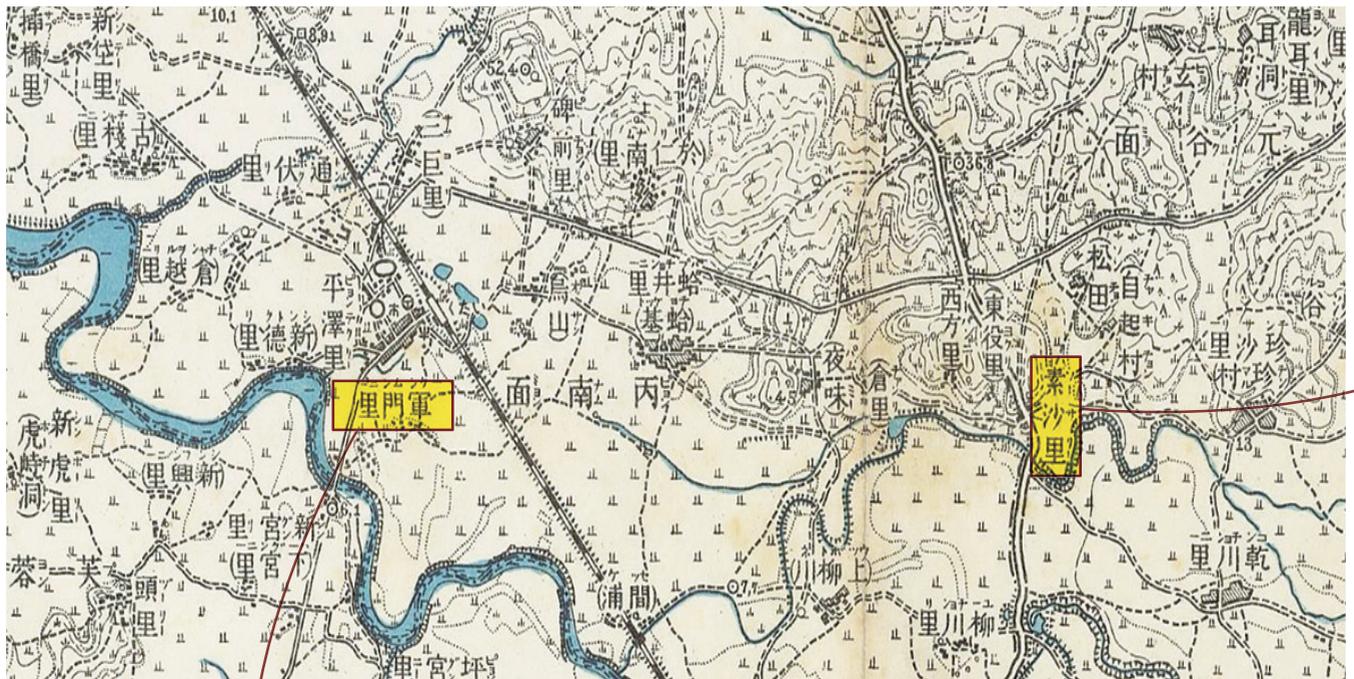
湖)라는 표현을 썼는지는 불분명하다. 특이한 점은 소호장기 명칭 옆에 점막(店幕)을 표기해 두었다. 점막은 주막과 같은 표현으로 이곳이 《해동지도》에 보이던 소사주막이었다. 그러므로 소호장은 소사장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소사장은 소사교와는 조금 떨어져 있으면서 주막 혹은 점막이 위치한 곳에 장터가 개시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평택 지역의 장시 구조는 경부선 철도가 부설되고 철도 역이 들어서면서 큰 변화를 거쳤다. 경부선 철도의 각 역 중에서 평택역의 가장 큰 특징은 서해안과 가장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평택의 군문포는 경기 남부 지역과 충남 동북부 내륙 지역의 산물을 서해안의 포구로 운반해 나가는 경로에 위치해 있었다. 경부선 철도가 부설되기 이전과 이후 군문포는 서해안 각 포구의 상품유통 기지로서 중요성을 가졌던 군문포는 오랫동안 내륙 지역과 해안 지역의 상품을 교환하는 중계지였다. 그러나 상품유통구조가 점차 철도 위주로 편성됨에 따라서 평택 지역의 장시 구조는 큰 변화를 가지게 되었다. 군문포 바로 옆에 부설된 평택역은 그 시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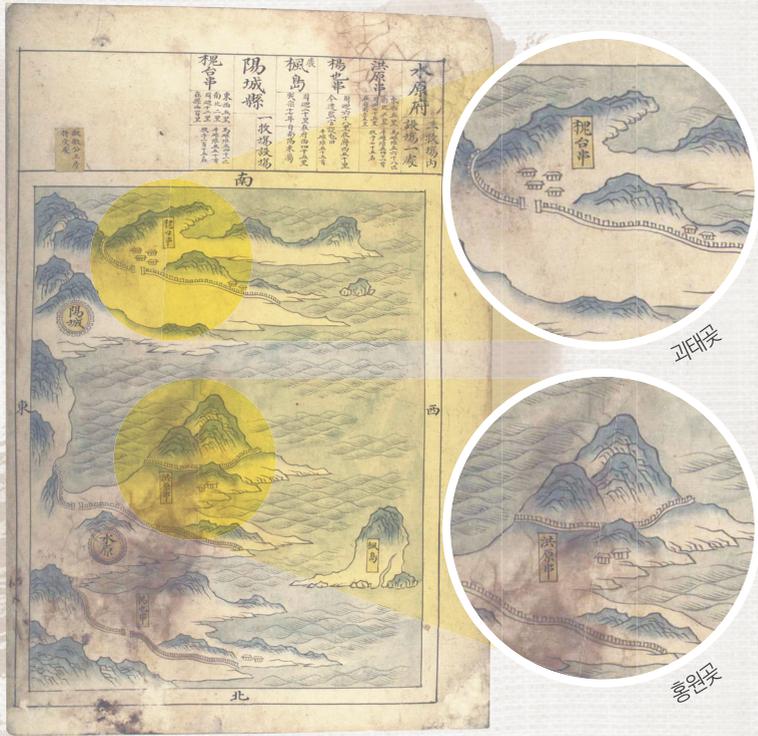
평택 지역의 상업권 중에서 가장 큰 장시는 소사장이었다. 소사장은 안성장의 상품유통망에 있었기 때문에 안성

장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았다. 안성장은 서해안을 거쳐 인천으로 통하는 해로가 물자 운송로로서 이용되기도 하였으나 서해안 지역은 해로로서보다는 내륙지방에 소금과 해산물을 공급하는 산지로서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소사장은 바로 그 길목에 자리하고 있었다.

평택 지역 장시 흐름의 역사적 분기 시점은 경부선의 부설과 평택역의 설치였다. 평택역은 서해안과 가장 가까운 곳이 위치한 역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평택역에는 아산만과 연결되는 군문포가 있었고, 인근에는 둔포라는 대포구가 자리하고 있었다. 평택역은 이들 포구를 통해 물자가 이입되고 이출되는 역할을 촉진시켰다. 그 결과 한적한 곳에 자리한 소사장은 평택역 앞으로 옮겨 설치되었고 지금의 평택시가지를 이루게 되었다. 평택 지역에서 소사장의 역할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소사별**



1914년 조선지형도의 군문포와 소사장 부근



《목장지도》 수원부에서 홍원곶목장과 과태곶목장



조선시대 평택 토산물

장연환 효명고등학교 교사

1. 조선 시대 평택 지역의 지리적 여건

2022년 7월 현재 573,987명 거주하는 평택시의 인구는 현재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전체 면적이 458,242km²이며 농지 비율이 41.6%인 190,759km²이다. 평택시를 각각 동서와 남북으로 가르는 진위천과 안성천 주변으로 곡창지대라고 할 만한 경관을 갖고 있으면서도 도시와 산업시설 또한 급격히 확장되고 있다. 풍요로운 들판과 도시 및 산업화가 공존을 이룬 지금의 평택지역을 둘러보며 과거 모습을 연상하기는 쉽지 않다.

서쪽으로 아산만을 하는 동고서저형의 지형이면서 오산천, 진위천, 안성천이 지나는 평택 지역의 상당 부분은 저

지대가 발달하고 바닷물이 들어와 농업에 유리한 곳이 많지 않았다. 진위면이나 송탄동 등 동북쪽 산기슭에 자리한 마을들은 계곡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지만, 서평택 지역은 해안선이 닦의 밭을 연상케 할 정도로 안쪽 깊숙하게 바닷물이 들어와 염해(鹽害)가 잦았다. 조선시대에는 바다로 돌출된 곳이 발달한 지금의 포승읍 원정리와 홍원리 등에 국영목장이 설치되어 소와 말을 키웠다. 지평선이 보일 정도로 들판이 발달한 오성들과 창내들은 집중호우가 내리면 하천변이 침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물살에 들판이 깎여나가면서 물길이가 바뀌곤 하여 농사를 망치기 일쑤였다.



1454년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당시 진위현에 221호(戶) 535명, 평택현에 179호 704명이 살았다. 1914년 일부 지역이 진위군에 포함되었던 양성현이 425호 1,210명이 거주했던 사실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의 규모이다. 호구(戶口) 수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농업 생산 수준이 낮았음을 의미한다. 특히 경기만에 인접한 서평택 지역은 농업 외에 어업이나 염업(鹽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인구 또한 많지 않았다.

아산만에서 많은 고기가 잡혔지만, 조수가 거세고 갯벌의 질척거림이 심하여 어항(漁港)이 많지는 않았다. 만호리의 대신, 흥원리의 자오포, 신영리의 신전포, 원정리의 호암 등이 어항으로서의 기능을 하였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염소(鹽所)가 수원부에 6곳, 양성현에 1곳으로 나온다. 염소는 불을 피워 수분을 증발시키는 방식으로 자염(煮鹽)을 생산하는 곳이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소금 생산은 더욱 늘었다. 1899년 《양성군읍지》에는 염분(鹽盆)이 11곳이라고 했으며, 1899년 《직산현읍지》에는 외야꽃면(현 포승읍 만호리·희곡리·만호리)에 소금가마[鹽釜]가 8개, 1907년 기록에 의하면 수원군 포내면(현 포승읍 원정리·만호리·내기리·석정리·운정리)에 소금 가마가 11개가 있었다. 자염 생산은 한국 전쟁 뒤 주변 지역에 천일염전이 등장하면서 쇠퇴하였다.



일제강점기 엮서 “자염” ©부산박물관

바닷가와 하천변의 배후지가 발달한 평택 지역에서는 조선 초기부터 간척이 진척되었다. 특히 조선 후기에 본격적인 간척이 진행되면서 유입 인구도 늘었다. 《세종실록지리지》가 편찬된 지 300여 년이 지난 1765년 무렵의 《여지도서》에는 진위현에 1,801호 4,776명, 평택현에 1395호 5,721명이었던데 비해 양성현은 2,321호 6,169명으로 늘어났다. 인구 기준으로 진위가 792%, 평택이 712% 증가하여 409% 증가를 보인 양성과의 격차를 줄였다. 이는 진위천과 안성천변에서 꾸준히 이루어진 간척으로 농업 생산이 늘어난 결과일 것이다.



《임원경제지》



주지하다시피 현재의 평택은 조선시대의 진위현과 평택현, 수원부 및 양성현의 일부가 합쳐진 지역이다. 지리지의 내용이 네 지역에 걸쳐 기록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평택 지역에 해당되는 산물을 정확히 가늠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다만 양성과 수원 땅의 바닷가는 현재의 평택에 해당되므로 이 지역의 수산물은 평택의 토산물로 간주해도 무리가 없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평택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작물로 오곡(五穀)과 조·팥·참깨·메밀·삼[麻]·뽕나무 등이 언급되었다. 이후 편찬된 지리서에서 농작물은 거의 소개되지 않고 《여지도서》의 평택현조에 벼와 콩 정도가 언급되었다. 또한 사찬 《팽성지》에서 도갱(稻穰, 메벼의 일종으로 마른 땅에 심음)과, 밭의 토질에 잘 맞는 곡식으로는 보리와 콩을 들었다. 특이한 점은 팽성지에 관개가 어려워 가뭄에 취약한 평택읍 지역의 농지에 특성에 따라 기장[黍], 조[粟], 팥[赤豆], 녹두(菘豆), 목화(木花)가 잘 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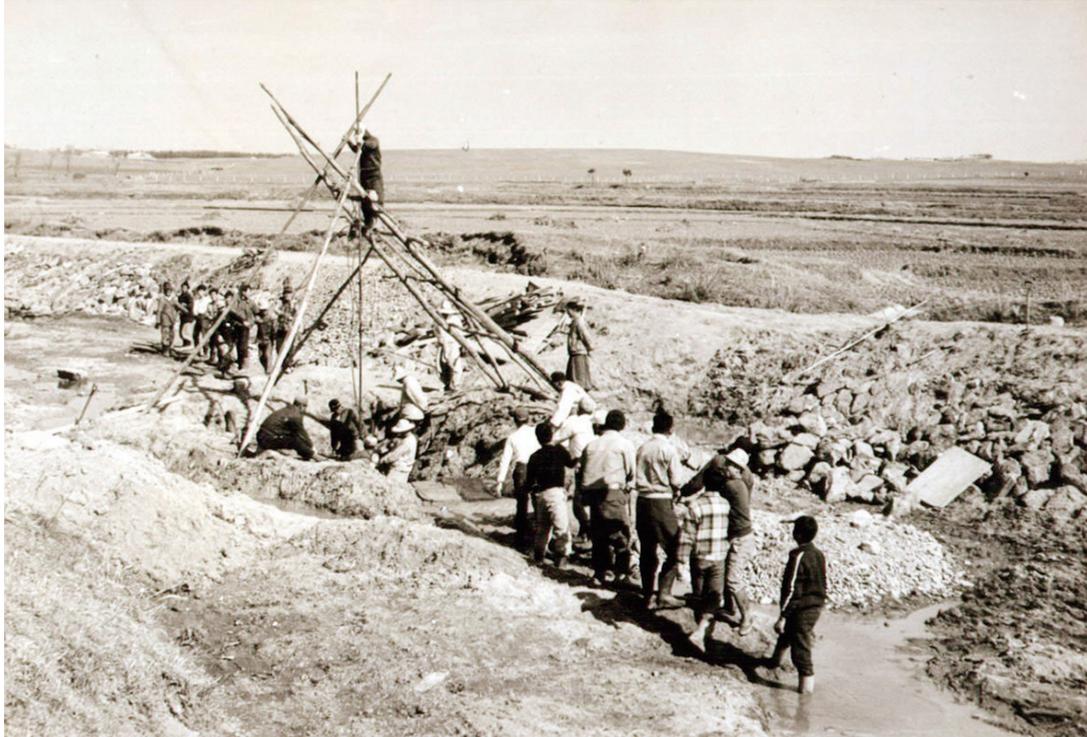
고 했다. 이 작물들이 가뭄에 강하고 전국적으로 재배되었던 밭작물이라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농작물과 더불어 약재로 지치[芝草], 속서근풀[黃芩], 지황(地黃), 택사(澤瀉), 인진쑥[茵陳], 향부자(香附子) 등이 언급되었다. 이러한 약재들은 전국 대부분의 산야(山野)에서 자생하는 식물들이다. 광물질로는 도자기의 재료가 되는 백토(白土)가 《신증여지승람》 진위현조에 유일하게 있으며, 가공물로는 족제비 꼬리털[黃毛]만 《세종실록지리지》 평택현조에 실려 있다.

해산물로는 밴댕이[蘇魚], 강달이[首魚], 민어(民魚), 준치[眞魚], 농어[鱸魚], 뱀어[白魚], 상어[沙魚], 쌀새우[白蝦], 큰새우[大蝦], 조개[土花], 굴[石花], 낙지(落地), 모시조개[黃蛤], 물고기젓갈[魚醢], 건승어[乾水魚], 병어(兵魚), 홍어(洪魚), 웅어[葦魚], 조기[石首魚], 참조기[黃石首魚], 승어[秀魚], 오징어[烏賊魚], 꿀뚜기[好獨魚], 조개[蛤], 가무락조개[黃蛤], 맛조개[竹蛤], 해파리[海囊], 중하(中蝦), 곤쟁이[紫蝦], 게[蟹], 청해(靑蟹), 부레[魚鰓] 등이며, 민물고기로는 웅어, 붕어[鯽魚], 가물치 정도가 있다. 민물고기도 종류가 다양하지만 이 정도가 당시 가치를 평가받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서유구가 저술한 《임원경제지》에는 진위의 신장(新場)에서 면포(綿布), 생닭(生鷄), 연초(煙草)가 거래되었고, 양성장에서는 미곡(米穀), 면포, 삼베(麻布), 어염(魚鹽), 대추, 밤, 배, 감, 송이버섯, 철물(鐵物), 목물(木物), 옹기, 연초가 풍부하다고 했다. 장시의 거래 품목을 통해 당시의 생산물을 추론해보는 것도 좋겠다. **소사별**

빛바랜 사진이야기 / 자연재해



가뭄 극복을 위한 노력 1970년 봄 / 서정천(평택시 고덕면)

1970년 봄, 박정희 대통령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한해 대책을 숙의하기 위해 4월 27일 기급 지방장관 회의를 소집했다. 당시만 해도 서울특별시장이거나 광역시장, 각 도의 도지사 등 지방 관청의 수장을 '지방장관'이라고 불렀다. 지금처럼 선거를 통해 광역자치단체장을 선출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광역단체장을 임명하던 관선시대였기 때문이다. 이날 열린 지방장관 회의는 표면적으로는 가뭄대책 마련을 위한 것이었지만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의 시발점이 된

회의였다는 점에서 보다 큰 의미를 갖는다. 사진은 가뭄으로 고덕면 서정천이 말라붙자 마을주민이 한마음이 되어 물길을 찾고 있는 모습이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서정천 바닥이 드러나자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하천 바닥까지 준설하고 그것도 모자라 대형 펌프로 물을 양수할 수 있도록 구멍이를 파고 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인 30여명의 주민들이 물줄기를 찾고 있는 모습에서 당시 가뭄을 극복하고자 했던 절박한 심정을 엿볼 수 있다.



수해 복구 작업 2000년 7월 27일 / 진위면 동천1리 동추골(평택시 진위면 동천1리)

2000년 7월, 평택시 전역에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가 발생했다. 특히 평택시에서 비교적 높은 산이 있는 진위면 일원은 많은 산사태가 발행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매우 컸다. 사진 속 마을은 평택에서 가장 높은 산인 무봉산 동편 자락에 위치한 진위면 동천1리 동추골이다. 빗물에 쓸려온 토사로 몇 채의 가옥이 전파 또는 반파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고 현장을 복구하고 있다. 사진 상단 가운데 보이는 무봉산 중턱에부터 시작된 산

사태로 엄청난 양의 토사가 동천1리 마을 중심부까지 쓸려 내려와 가옥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고 인명피해까지 동반하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 산사태가 발생하자 평택시는 시민자원봉사자와 공무원, 평택경찰서 전의경, 군부대 장병이 참여해 대대적인 수해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당시 평택시민과 기업, 단체에서는 자발적으로 수해 피해주민을 돕기 위한 성금모금에 참여하기도 했다.



수해지역 대민 봉사활동 2000년 7월 25일 / 진위천 제방(평택시 진위면 봉남리)

평택은 1973년 현덕면 권관리와 충남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를 잇는 평택호방조제 완공 이전까지는 조석에 의해 간조에서 만조로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는 밀물 때 크고 작은 수해가 발생했다. 이후 2000년까지만 해도 진위천과 안성천 제방이 낮고 견고하지 못해 수원, 용인, 안성, 천안 등 상류지역 10개 시·군에서 유입되는 강우로 하천이 범람하고, 제방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다. 기계화된 배수펌프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농민들은 구멍 뚫린 하늘만 원망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때마다 경기도와 평택군은 '항구적 수해대책 마련'을 구호처럼 내세웠다. 사진은 2000년 7월 25일 폭우로 진위천이 범람해 진위면 봉남리 세월교 상류 제방이 유실되자 공군작전사령부 장병들이 마대자루에 흙을 담아 긴급 복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평택에는 공군작전사령부와 해군 2함대사령부, 육군 51사단 196연대가 주둔하고 있어 풍수해와 설해 등 각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수해지역 대민 봉사활동을 펼쳐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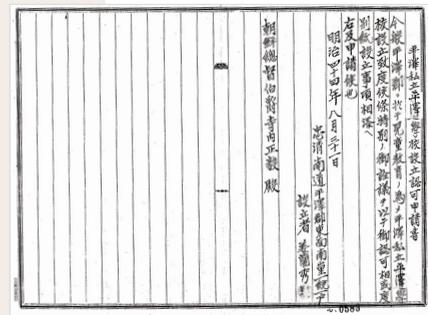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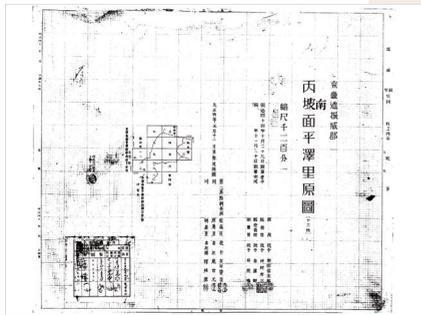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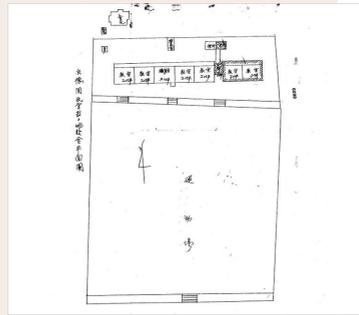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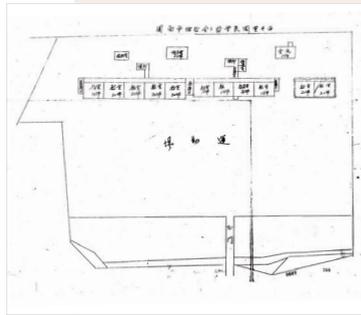


소방차까지 동원한 가뭄극복 현장 2001년 6월 16일 / 진위면 은산리 농경지(평택시 진위면 은산리)

2001년에는 봄에는 가뭄이 심해서 하늘에 의존해 벼 농사를 짓는 천수답의 경우 모내기를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평택지역은 1973년 평택호방조제를 준공하면서 만들어진 인공담수호인 평택호에서 평택시 전역의 농경지에 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되면서 전천후 농업지역으로 탈바꿈했다. 그러나 관개 수로가 갖춰지지 않은 일부지역은 평택호 용수 공급이 안 되어 적기에 비가 안 내릴 경우 가뭄 피해를 입었다.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한해

투쟁대책'이라고 하는데 한해대책은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소방, 군부대 등이 보유한 장비를 총동원하게 된다. 사진은 평택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1만 리터 용량의 물탱크차를 투입해 진위면 은산리 가뭄 피해를 입은 농가의 천수답에 물을 대주는 모습이다. 이 농가는 가뭄으로 인해 6월 중순까지 모내기를 하지 못해 밭을 동동 구르다 평택소방서의 급수 도움으로 논에 물을 대고, 모내기 한계선인 6월 하순에서야 논에 모를 낼 수 있었다. **소사별**

글·사진 박성복
Pyeongtaek Photobank/Memory in Pyeongtaek 대표



평택문화를 반추하다

- 국가기록원 속 평택 1 -

황수근 문화사업부 학예연구사

‘기록은 미래를 보는 지혜의 창’ 국가기록원 누리집 인사말의 말머리이다. 이 말머리처럼 기록의 중요함은 그 자체로도 역사이지만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매개체이기도 하다. 기록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국가기록원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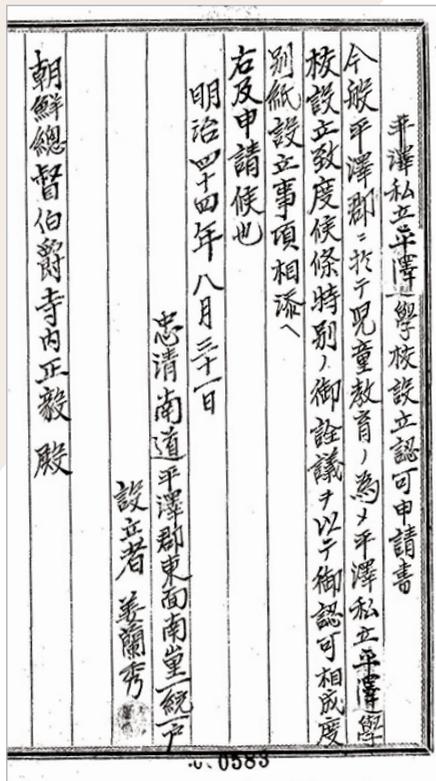
국가기록원에는 다양한 정부 문서를 보존하고 있다. 근대부터 현재까지의 일반문서, 도면, 사진·필름, 녹음·동영상, 카드, 정부간행물, 간행물 등 다양한 기록이 방대히 저장되어 있다. 모든 기록이 공개되어있지는 않으나 공개된 기록 중 일부를 누리집을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평택 관련 기록은 수만 건이며, 여기에서는 이 기록 중 문서와 도면을 중심으로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립학교 설치인가 지령안(평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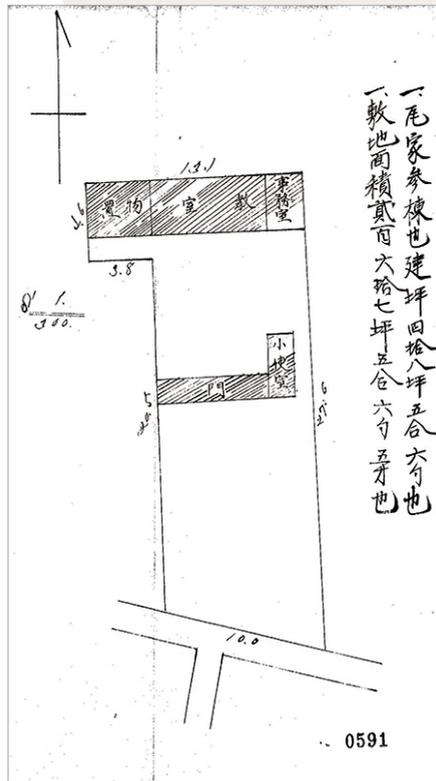
이 기록물은 일제강점기 1911년 조선교육령으로 사립 학교로 인가를 받으려는 학교의 설치인가 관련문서다. 내용으로는 목적, 명칭 및 위치, 학칙, 교지, 교사, 평면도(평수 및 부근의 상황을 기재함), 1년의 수지 예산, 유지 방법, 설립자 학교장 및 교원의 성명 및 이력서 등을 갖추어 조선 총독의 인가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문서에는 평택학교를 비롯해 이화학당, 광성학교 등이 함께 수록되어있다.

평택학교(현 평택성동초등학교)의 경우 분량은 12쪽

으로 사립 평택학교설립 인가신청서, 설립사항, 학칙, 평면도, 교원 등이 실려 있다. 문서를 살펴보면 명치 44년(1911년) 8월 31일에 작성하였으며, 평택군의 아동 교육을 위해 학교설립을 신청하고 있다. 설립자는 강난수로 주소는 충청남도 평택군 동면 남산리(현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1통 1호이다. 학교는 객사리에 위치하며 운영에 산과 교과목 등을 알 수 있고 정원은 120명으로 4년제이다. 그 외에도 학사일정과 수업량, 설립자와 교원의 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사립평택학교 설립인가신청서



학교 평면도





평택을 품은 이야기

함평 이씨 평택가문과 노루이야기

강하늘 문화사업부 학예사

평택에서 오랜 기간 세거한 함평 이씨의 평택 역사는 입향조인 조선시대 이증길로부터 시작됩니다. 고려시대 지방 호족이었던 이증길은 조선 건국에 협조하지 않아 조선 건국 이후 박해를 받았고, 결국 경기도 포승읍 내기리 은곡으로 터를 잡았습니다. 이증길이 은곡으로 터를 잡은 데에는 노루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어렵게 삶을 이어가던 이증길은 1402년 태종의 사면을 받아 개국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이 되어 벼슬을 얻었습니다. 이후 함평 이씨 평택가문은 꾸준히 관직 진출을 하였고, 양반 가문으로서의 위상을 다져나갔을 뿐 아니라 평택 서부지역의 중요한 명문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해복 동화작가가 재구성해주었습니다.

입향조 이종길과 노루 이야기



“여보세요~~ 살, 살려 주세요. 저 좀 살려 주세요.”
어디선가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나무를 하던 나무꾼이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노루 한 마리가 멀리 언덕 위에서 구르듯이 달려오며 소리를 치는 게 아니겠어요?



나무꾼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해 놓은 나뭇단을
촘촘히 쌓아 노루를 숨겨 주었어요.



잠시 후 사냥꾼이 험레벌떡 달려와서 노루의 행방을 물었어요. 나무꾼은 말없이 반대 방향을 가리켰지요. 숨을 죽인 채 숨어 있다 나온 노루는 두 발을 모아 절을 하였어요.

“저를 살려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요.”

“별 말을 다 하는구나. 누군가 어려움에 처한 걸 보고 돕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니?”

“아, 참으로 고마우신 마음입니다. 제가 드릴 것은 없고…잠시 저를 따라오시겠어요?”

나무꾼은 의아해하며 노루를 따라갔어요. 한 곳에 이르자 노루가 말을 하였어요.

“이곳이 앞으로 댁의 자손들이 대대손손 복을 받을 좋은 터입니다.”

말을 마친 노루는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이고는 수풀 속으로 사라져갔어요.

죽을 뻔한 노루를 살려준 나무꾼은 조선 초에 정치적 혼란을 피해 포승을 내기리에 자리 잡은 이충길이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노루가 잡아준 좋은 터는 내기리의 ‘은곡’이란 곳이었습니다. 이충길이 은곡으로 터를 잡은 뒤 이충길의 자손들은 대대손손 귀한 지위에 올랐다고 해요.

그 일 이후로 이충길의 함평 이씨 가문에서는 절대로 노루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해요. 비록 미물일지라도 은혜를 베풀어준 데 대한 고마움을 결코 잊지 않으려는 귀한 마음에서랍니다.



함평 이씨 평택 기문의 사당, 은곡사

포승읍 내기리에는 함평 이씨 묘역이 자리 잡고 있으며 사당인 은곡사가 있습니다. 은곡사에서는 시조로부터 7세인 이인계와 그의 아들 이온, 이온의 아들인 이중길, 이중보 등 4위의 위패를 모시고 제향을 지냅니다.

함평 이씨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1. 이대원

조선 중기의 무신인 이대원 장군은 1578년(선조20)에 전라남도 고흥에 출몰한 왜구를 토벌하는 데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왜구가 다시 손죽도 근해를 침범하자 손죽도 해상에서 적과 싸우다 전사하였습니다.



2. 이병헌

이병헌은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식을 거행할 때 청년대표 6인 중 한 명으로 조선독립 만세 시위운동에도 참여하여 독립 만세를 외치며 시위행진을 주도하였습니다. 경기지역의 독립 만세시위에도 참여하여 독립 의지를 고취하였습니다.

3. 이조현

이조현은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자 중국으로 망명해 중화민국 북경대학을 다니며 상해임시정부 요인들과 교류를 가졌고 귀국 이후 상해임시정부 재정협조를 위해 진위구락부를 조직했으며, 상해임시정부와 신간회와의 연락사항을 담당했습니다. 언어와 문학 및 풍속에도 관심을 가져 《중어대전中語大全》을 집필하기도 하였습니다. **소사별**



여기는 평택이다

최치선 평택학연구소 상임위원

팽성읍 대사리는 군계천을 경계로 천안시 성환읍 신방리와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와 마주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능선 위쪽으로 충청대로가 지나고 마을 동남쪽 방안골과 옷나무골, 대사들에 넓은 경작지가 펼쳐 있었다. 마을 남쪽으로 흐르는 군계천은 조선후기 평택현읍지도에 독천(獨川)으로 기록됐다. 1974년 아산만 방조제 준공과 경지정리사업이 있기 전만 해도 독천 강안(江岸)에는 바닷물이 밀려들고 넓은 모래밭이 펼쳐졌다. 그래서 유래된 지명이 대사(大沙)·대삿골·대사동이고 우리말로로는 큰모래벌이다.

팽성읍 대사리 고구마밭 풍경.

얇은 구릉지를 개간해 옥수수, 감자 등 갖은

농작물을 심어왔던 곳으로 현재 평택에서 가장 큰 밭이다.

가운데 멀리 추팔공단이 보이고 오른쪽 마을이 대사2리다. 



수직으로 본 6월의 고구마밭 풍경 . 촘촘이 구멍 뚫린 비닐덮개 사이로 무럭무럭 고구마가 자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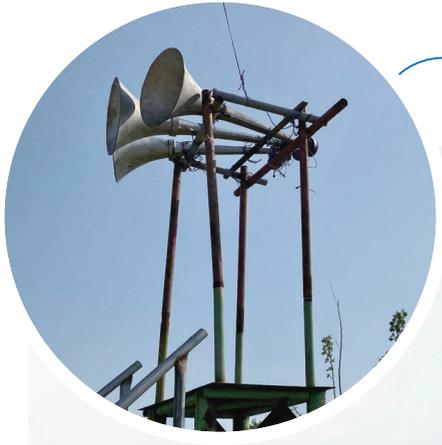
대사2리는 한국전쟁 때 노와4리 경계에 형성된 장단피란민수용소 3번에 속했던 마을이 분리 독립했고 1960~70년대에는 남산2리 귀농촌에 정착했던 귀농민들 가운데 일부가 이주하여 형성된 마을이다.



대사1리 작은말



대사1리와 2리를 가로지르는 KTX 고속철도,
남산리와 송화리 너머 멀리 캠프힐프리스가 보인다.



“아~아~ 주민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대사1리 큰말에서 작은말 너머 가는 언덕에 설치 된 스피커



대사1리 큰말



일제가 금지한 노래책,

《근화창가》

- 경기도 첫 번째 근대음악유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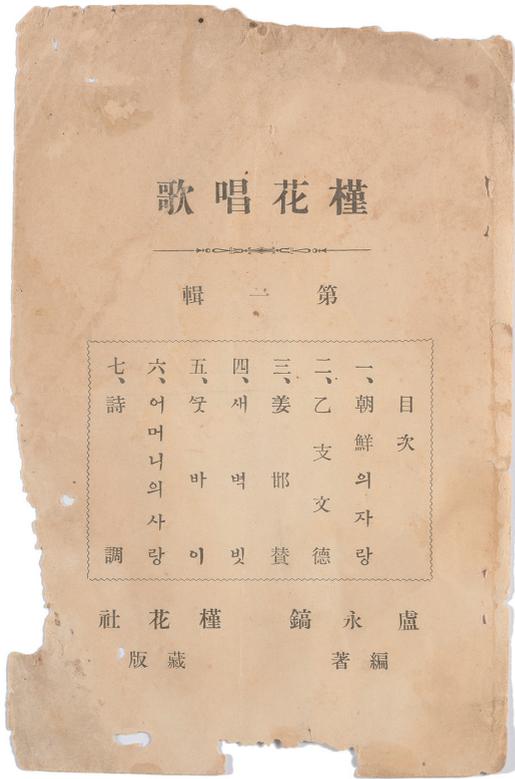
문승호 평택시 관광과 주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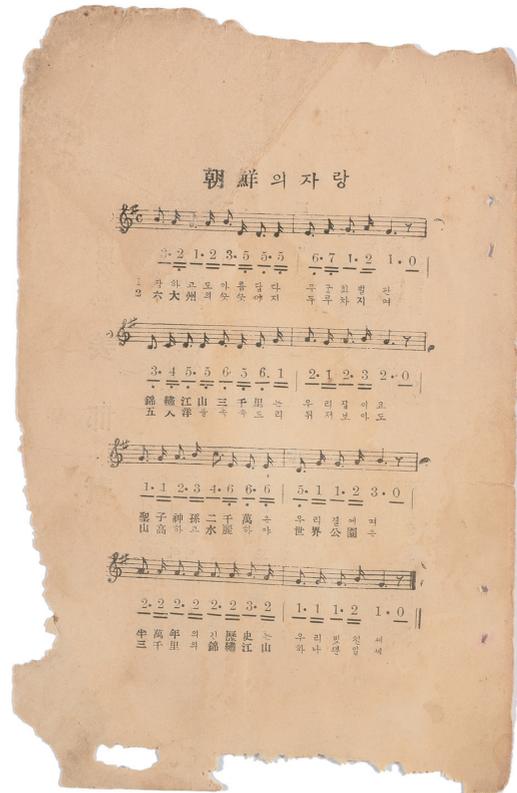
《근화창가》 표지

음악은 그 시대 사람들의 정신과 역사를 담고 있다.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정신이 담겨 있는 음악책이 있다. 경기도 첫 번째 근대음악유산《근화창가》제1집이 바로 그것이다.

《근화창가》는 100년 전 치안을 사유로 조선총독부에 의해 금지 처분되어 사라진 음악책이다. 이 책은 민족음악가 노영호가 1921년 근화사에서 펴낸 것으로 조선의 역사와 영웅, 자연을 예찬하는 노래로 구성되어 있다. 즉 '조선의 자랑', '을지문덕', '강감찬', '새벽빛', '굿바이', '어머니의 사랑', '시조' 등 총 7곡의 우리말 가사와 숫자보, 오선보가 수록되어 있다.



《근화창가》목차



'조선의 자랑'

《근화창가》는 민족음악학자 故 노동은 교수가 평생의 노력으로 발굴해 소장하다가 사후 이것을 유족들이 2019년 2월에 평택시에 양도하여 세상에 드러났다.

《근화창가》는 일제강점기라는 어두운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의 노래를 부르려 했던 불굴의 의지와 투쟁을 보여주는 항일운동의 증거물이라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발행되어 애국심과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음악이 수록된 것과 희소성 등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22년 4월 경기도 등록문화재 제14호로 지정되었다.

특히 평택시는 3·1운동 등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곳이라는 점에서 《근화창가》는 평택의 정신적 자산을 연결하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일제강점기 가슴 아픈 기억과 역사는 글에서만 아니라 음악을 통해 느끼고 상상할 수 있다. 《근화창가》에 수록된 음악을 통해 핍박과 수난을 견디며 일제에 대해 항거했던 우리 선조들의 정신과 용기를 글이 아닌 노래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소사별**



장애인역사들의 끝없는 열정!

2022 Pyeongtaek World Para
Powerlifting Asia Oceania
Open Championships

2022 평택세계장애인역도 아시아오세아니아오픈선수권
대회를 마치며

최수용 평택시장애인체육회 팀장 / 대회조직위원회 기획총무팀장

경기도 평택시는 오래전부터 대한민국 역도의 메카로 널리 알려져 있다. 1950년대부터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역도 선수를 꾸준히 배출하며 1970년, 1986년, 1990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각종 국제역도선수권 대회에서 평택 출신 역도 선수들이 금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한국 신기록을 30여 회 갱신한 효명고등학교 출신의 황우원 선수는 1986년, 1990년 아시안게임에서 2관왕을 차지하며 지금도 대한민국 역도계의 전설로 기억되고 있다.

과거 평택이라는 척박한 곳에서 우수한 역도선수들이 배출된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1950~60년대 어린 역도선수들은 맷돌이나 시멘트로 만든 원판(디스크)을 사용해 훈련했으며, 평택에 주둔 중인 미군부대가 폐기한 역도 기구들을 이용했다고 한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평택시는 꾸준히 각종 국내 대회를 유치하며 2012년에는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평택역도의 발전은 자연스레 장애인역도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2000년 후반부터 평택시 장애인역도는 두각을 나타내며 2010년 9월에는 평택시장재인역도연맹이 창립되어 각종 대회에 참가하기 시작하였다. 평택시와 평택시장재인체육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경기도지사기 전국장애인역도대회와 평택시장기 경기도장애인역도대회를 지난 10년간 꾸준히 개최하며 대한민국 장애인 역도발전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다.

그 결과, 평택시는 2018년 전국 최초로 지자체 장애인역도실업팀(감독 1명, 선수 4명)을 창단하여 매년 각종 장애인역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국가대표에 선발되는 등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장애인 역도의 메카가 되었다.



지난 2018년 대한장애인역도연맹의 국제장애인역도 대회 국내 유치 의향에 따라 평택시는 대회 유치에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며 작년 2021년 5월 국제대회 개최 시로 최종 결정되었다. 대회 공식명칭은 2022평택세계 장애인역도아시아오세아니아오픈선수권대회로 2022년 항저우아시안패러게임 및 2024년 파리패럴림픽 출전권을 부여하는 장애인 역도의 권위 있는 대회이다.

국제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평택시는 이번 대회에 5억 4천5십만원을 지원하고 시 공무원 3명과 평택시장애인 체육회 1명을 대회조직위원회에 파견하는 등 성공적인 대회개최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기장(안중체육관), 숙소(포승 라마다양코르호텔) 주변 도로 정비 및 환경정화 사업 등 약 70억원을 투입하였다.

또한 경기도에서도 5억원을 지원받았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대회개최지원 공모에 선정되어 국제대회 장애인 단일종목 최초로 4억7천5백만원을 추가지원 받았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로 침체된 국제스포츠 정세에도 불구하고 22개국에서 276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지난 6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진행되었다.



평택시와 대회 조직위원회는 개최시인 국제도시 평택시의 위상에 걸맞게 화려하고 품격 있는 공식행사(개폐회식)로 참가 선수단에게 감동을 주었고 문화체험 프로그램(쇼핑, 농악공연관람, 서해수호관 관람)을 제공하는 등 타 대회와 차별화된 특색 있는 대회운영을 선보였다. 이번 대회를 위하여 남서울대학교, 카투스, 한국관광고등학교에서 100여명이 대회지원요원으로 투입되었으며 자원봉사자, 시민서포터즈 등 1,000여명이 참가하여 성공적인 대회개최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우리 평택시청 장애인역도실업팀 소속 선수들도 한국 대표로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안방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 시민들의 열렬한 응원과 격려를 받았다. 평택시청 선수들은 대회기간 “비인기 종목의 어려움을 딛고 많은 관중들의 환호와 박수에 더 좋은 기록을 낼 수 있었다. 앞으로 더 많은 국제대회들이 국내에서 개최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장애인의 한계를 뛰어넘고 세상과의 편견에 맞서 싸우기 위하여 수 천번 바벨(역도 바)을 들어올렸을 장애인 역사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현장의 분위기는 더욱 뜨거웠다. 그들은 바벨을 들기 전 스스로 주문을 외우며 큰 기합 소리를 지른다. 그들의 우렁찬 기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들으면 그들이 살아오면서 겪었을 차별과 아픔을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게 된다.

이번 2022평택세계장애인역도아시아오세아니아오픈선수권대회가 단순히 국제장애인스포츠대회로 인식돼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미래의 장애인이다. 장애인 스포츠는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가 아닌 우리의 미래를 위한 스포츠로 인식이 되어 이번 대회가 장애인 역도뿐만 아니라 장애인 스포츠에 활력을 새로이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소사별**

**PASSION
ENDLESS!!**





서정리초등학교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며

서정리초 100년의 기억

문화사업부

서정리초등학교는 1922년 서정리공립보통학교로 개교한 뒤 오늘날 10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꿈과 추억을 함께해오며 100년간 지역의 교육을 책임져왔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역할을 해오며 지역공동체 의식 형성에 이바지하였습니다. 100주년을 맞이하는 서정리초등학교를 기념하기 위하여 서정리초등학교와

서정리초등학교총동문회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사진공모전 '서정리초등학교에 대한 기억을 소환합니다'를 통해 학교의 자료를 찾고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서정리초등학교 100년사' 발간에 활용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서정리초등학교 역사의 몇몇 순간을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서정리초등학교 전경





《동아일보》서정보통학교인가(1922.6.25)

서정리공립보통학교의 개교

조선시대 송탄은 진위현의 송장면과 일탄면 일원으로 중심지와 거리가 있는 농촌지역이었으나 1905년 경부선 서정리역이 개통되면서 사회경제적 변화가 나타났다. 근대공간으로서 서정리역 일원에는 학교, 단체, 종교시설, 시장 등 근대기관과 시설이 형성되어 평택 북부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아 갔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근대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자각하고 욕구가 증대함에 따라 송탄에는 진동학교 등 근대적인 사립 교육기관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공립 교육기관으로는 1면 1교 일제의 정책에 따라 1922년 서정리공립보통학교가 개교하였다. 서정리공립보통학교는 개교 이후 꾸준히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그 인원은 점점 증대하였고 교원 역시 증가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정공보초리사건

서정공보초리사건은 1927년 서정리보통학교의 일본인 교장 충원(沖原)가 경제적인 목적이라는 구실로 일본식 초리(짚신)을 수원, 경성, 개성 등의 수학여행에서 일제에 대한 복종과 내선일체를 보여주기 위해 학생들에게 강제로 신긴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여론도 들끓었으며 교장은 경고장을 받고 학부모는 전학을 시키려고 하는 이들과까지 있었다. 이 사건은 일본인 교장의 독단적인 행위였지만 당시 일제의 내선일체를 보여주는 사건이며, 동시에 지역민이 일제에 대한 반감을 들어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초리(짚신)

우리짚신과 달리 천으로 된 끈이 있으며
엄지와 검지를 통과시켜 신는다.



《매일신보》우량지도학교 서정리공보를 방문함-1(1932.8.7)



(상)아동들의 풀베기대회, (하)밭일실습



(상)지도생의 마을 순회, (하)아동들의 도로수선



(상)퇴비중산, (하)소똥줍는 광경



(상)학교양잠실에서 양잠실습하는 아동, (하)양계장에서 양계실습하는 광경



조선총독부는 농촌의 중견인물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식민농정과 전쟁수행을 밑에서 부터 지탱하는 '황국농민'으로 만들려 했다. 이러한 정책에서 서정리보통학교 적극적으로 농사 지도를 시행하였고 우수한 성과를 내었다. 특히 《매일신보》에서는 1932년 8월 7일부터 12일까지 <우량지도학교 서정리공보를 방문함>을 5회의 연재하였다. 이 보도에는 기사와 함께 기사마다 <서정리공보생의 작업실황>이라고 하는 사진 2장을 넣어 총 10장의 사진이 함께 게재하여 당시 서정리보통학교의 모습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오십까지 가서 촬영한 임석동 선생님 졸업사진

임석동 선생님이 들려준 서정리초등학교

임석동 선생님은 1931년 서정리에서 태어나 서정리국민학교 제 19회(1943년) 졸업생으로 전쟁 전에 서정리국민학교에서 일을 시작하였고 군대를 전역한 뒤 서정리국민학교에서 교편을 잡아 복창초등학교에서 퇴임한 평택교육의 산증인입니다.

플라타너스 이야기

학교 정문 좌우와 운동장 주변으로 오래된 플라타너스 나무가 곧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름답디 플라타너스 나무는 종종 졸업 사진에 등장하기도 하는 학교의 상징과도 같은 나무이기도 합니다. 임석동 선생님은 이 나무 내력에 대해 1회 졸업생이 재학생 시절 식목일에 심은 나무라고 선배들에게 들었다고 합니다. 나무는 100여 년 동안 서정리초등학교와 함께하며 학교를 지켜왔습니다.



임석동 선생님과 플라타너스 나무



서정리초등학교 교가

교가이야기

“반지산 아침햇살 정기를 타고~♪” 서정리초등학교 교가의 앞부분입니다. 임석동 선생님은 이 서정리초등학교 교가의 작사가이기도 합니다. 조영한 작곡가는 당시 수원에서 활동하던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이 교가가 만들어진 시점은 임형재 교장선생님 때(1959.3.28. ~ 1959.11.30.)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1959년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교가는 서정리초등학생이라면 모든 학생이 소리높여 불렀던 추억의 노래입니다. **소사별**

작가의 시선 평택 아카이브 展

작가의 시선 평택 아카이브 展 도록 발취



작가의 시선 - 평택 아카이브 展 포스터

《작가의 시선-평택아카이브展》은 2022년 4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평택북부문화예술회관에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주최, 평택시문화재단 주관으로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오랜시간 평택의 모습을 예술가의 시선으로 담아온 이수연, 김윤오, 최치선, 황혜인 4인의 작가가 참여하는 전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평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

기억과 추억 사이 : 쑥고개

송탄의 옛 이름 '쑥고개'를 주제로 미군과 어우러진 본토박이의 특색 있는 문화와 이수연 작가의 기억 속에 자리 잡은 그 공간에 대한 기억을 사진으로 선보였다.



오산기지 후문 가는 고가도로 입구



정문동

평택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온 김윤오 작가와 최치선 작가가 참여한 2부 <기억과 추억 사이 : 서정리>는 변화의 바람 속에 기록된 고향 서정리를 추억하는 전시로 사진과 영상을 통해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했다.

2부

기억과 추억 사이 : 서정리



반지산 성육보육원 쪽에서 본 서정리 전경. 왼쪽 멀리 서정동성당과 오른쪽 멀리 갈평 넘어 청북으로 가는 길이 보인다(1972년).



상전벽해가 된 서정리 전경(2021년)



5일장 Street Market(2019년)



Luncheon Under Arms(2019년)



3부 P를 찾아서

2014년부터 안정리 일대의 풍경과 인물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조망해온 황혜인 작가의 3부 <P를 찾아서>는 지역과 인물들의 이야기와 작가의 시각이 어우러진 전시로 지금의 안정리의 모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선사했다. **소사랴**

철강공장의 재탄생 mM Artcenter

mM Artcenter 자료제공

2022년 3월 31일에 평택시 미술관 mM Artcenter가 포승읍에서 개관했다. mM Artcenter는 고품질의 철 스크랩 제품을 생산하던 철강공장에서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됐다. 현재 공장 건물과 사옥을 리모델링하여 전시, 공연, 부대시설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금도 철강공장의 흔적들을 엿볼 수 있다.





#흔적1. 그릇

mM Artcenter에는 일명 그릇이라고 불리는 상징물이 있다. 이 상징물은 공장에서 사용됐던 저장탱크로 수없이 단조가 이루어져 찢기고 건조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 곳이 재생공간인 것처럼 공장의 자원을 상징물로 재생시켰다. 이러한 점에서 그릇은 센터의 가치관이 담긴 상징물이다.

#흔적2. 공장을 리모델링한 외벽

작품을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올 때 이용되는 문의 디자인이 독특하다. 건물은 기존 공장건물을 그대로 사용했고, 외벽은 현대적으로 리모델링되는 과정에서 철강공장 때부터 바닥에 깔려있던 철이 활용됐다.



전시관



주차장



지하주차장 진입로

#흔적3. 연구동과 지하주차장

전시관은 본래 외부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연구동이었다. 철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실험됐던 곳으로 지금은 메인전시장으로 리모델링되었다. 지하주차장 진입로는 '조아물산'의 사업영역을 모티브로 고풍을 재활용한 조형예술이 설치되어 있고, 주차장이었던 곳은 미디어아트, 전시, 아트마켓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흔적4. 상량문

메인전시장 천장에는 연구소의 상량문이 남아있다. 상량한 날은 을미년 4월이며, 주식회사 알엔씨연구소라고 적혀 있다. 위, 아래로는 용 龍(용), 거북 龜(귀)가 적혀있다.

※ 상량문은 건물을 짓고 마지막에 올리는 것으로 건축물의 이력과 축문을 적은 것이다.



mM Artcenter의 개관전

mM Artcenter는 개관전을 3월 31일(목)~6월 30일(목)까지 'Horizontal Aesthetics - 수평의 미학'을 개최했다. 개관전은 회화, 영상 등 한국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14명을 초대하여 평택의 지리적 특성과 생태학적 의미를 시각화하고, 상징화하고자 기획했다.



평택문화원 Pick!

작가노트 발췌

고고학적 풍경-불의 만다라 (차기울 작가)

차기울 작가는 화성시 팔탄면 출신으로 서해안의 변화가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다. 생태학적 고고를 예술작품으로 기록하기 위해 만든 작품이다.

갯벌은 달의 주기에 따라 밀물과 썰물이 부드럽게 씻고, 쌓으며 만만(萬萬)의 생명을 잉태하는 광휘의 바다흩이다. 그 매끄러운 살갗은 숨겨 품은 생명들이 피부에 돌아 난 수많은 종류의 증기들처럼 쌓은 작은 성채들로 빼곡한 표면을 이룬다. 뚫고 오르는 구멍들은 살 속에 숨을 들인다.



미니인터뷰

최승일 관장과 김수철 예술감독



mM Artcenter 명칭의 의미는?

'mM'은 크기를 표기하는 단위의 접두사인 milli(m)와 Mega(M)의 약자이다. 작은 단위를 'milli', 큰 단위를 'Mega'로 정의하여 작은 것들이 모여 결국 거대한 하나를 이루듯 예술가들이 미술관으로 모여 평택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의 도약을 이루기 위한 포부와 염원을 담았다.

앞으로의 방향성은?

mM Artcenter는 앞으로 평택과 관련된 전시를 지속적으로 기획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평택이 문화의 불모지라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고민을 하고, 평택을 중심으로 또 다른 독특한 문화가 생길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2-0220-공간탐색 (도병훈 작가)

도병훈 작가는 땅의 표면을 추상화 시켜서 상징으로 재현한 옛날 지도 위에 역사적 정보를 입혀 평택을 중심으로 경기남부지역의 과거를 현재화 시킨 작품이다.

고지도의 옛 문자 및 기호들은 공간의 역사적, 조형적 탐색에 따라 달라진다. 고지도 위의 새로운 문자와 기호, 점, 선, 색면의 어우러짐 및 우연적 흔재는 다층적 장(場,field)을 만드는 조형 요소이기도 하다. 관점, 혹은 상상력을 확장하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하는 물질과 호흡할 수 있는 감수성이 그 출발점이나, 반드시 숙성의 과정이 필요하다. **소사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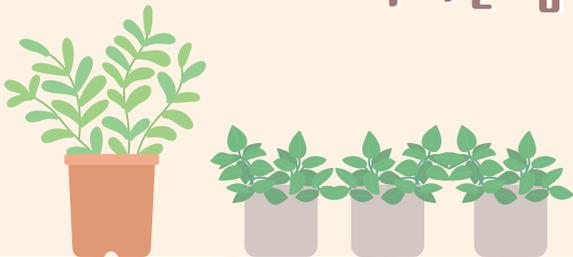


평택시민을 품는 공간

첫 번째 평택시민의 공간 1호를 열며

이명희 평택시 미래전략관 협치지원관

'시민의 공간' 이야기를 담다



2022년 6월 22일은 평택시민의 공간 1호가 개관을 하고 100일을 맞은 날이다. 아기가 탄생한 백일을 축하하는 것은 잉태 후 일 년이 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예부터 숫자 100은 완전함과 성숙함을 상징하기도 했다.

시민의 공간 1호도 100일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100일을 돌아본 것은 시민의 공간이 잉태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2020년 3월부터 지금까지, 평택시 협치회의 협치 의제 채택 이후 의사결정부터 예산 수립, 리모델링 공사 후 개관까지의 모든 시간이다. 이 시간은 지역사회를 위한 시민의 활동이 보장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고 했을 때 기존의 공공공간의 내용과 운영방식에서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공론을 일으켰다. 염려도 많았고 그래서 관심이 모아졌던 프로젝트였기에 개관 이후 백일잔치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시민들의 이야기와 마음을 잘 품어 준 이 공간에 대한 감사함이기도 했다.



평택시민의 공간 1호 개관 100일 행사
'이야기를 담는 공간'

가치와 바람을 담은 시민참여설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전문가와 행정의 진정한 소통

시민의 공간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과정에 함께 참여할 '시민참여설계단'을 공개모집 하였다. 기획설계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시민 수요를 파악하고 공간 이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 그 공간을 이용하고 그 공간을 통해 지역사회를 위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는가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시민참여설계단'에 참여했던 분들의 처음 시작은 서로 달랐다. 누구는 아이들과 함께 이용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누구는 하고 있는 활동을 더 펼치기 위해서, 누구는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눔과 봉사의 활동을 하고 싶어서 참여하였다. 그러나 활동을 통해 서로 바라는 것들은 크게 다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다. 공감의 과정인 것이다.

시민의 공간 구성은 이렇듯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이나 욕구를 가급적 제한하지 않고 펼쳐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크고 작은 모임이 자유롭고, 배움과 학습이 이루어지며, 다양한 문화가 향유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서 시민의 공간은 때론 연주회가 열리는 공연장으로 때론 엄숙한 의전이 있는 행사장으로, 때론 작은 食수다에서 만찬장으로, 날마다 날마다 변신하고 있다. 그것은 주방과 무대가 있는 커뮤니티홀이 용도에 맞게 공간을 레시피처럼 조합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시민의 공간 주요 공간 및 기능

층별	공간 구분		공간 활용
	용도	공간	
지상1층	복합문화공간	커뮤니티홀	다양한 모임, 소규모 행사, 강좌 및 워크숍
		공유주방	요리강좌, 식모임, 마을부엌 등
		미디어실, 스튜디오	유튜브 촬영, 개인방송, 온라인 회의, 방송제작 등
지상3층	소통협력공간 Co-Working Space Zone	공유공방	다양한 공예활동, 소모임
		공유오피스	PC 및 사무기기 공유, 업무공간
		회의실	소모임, 교육, 워크숍 등





시민의 공간 이용

이용시간 9:00 ~ 21:00 / 일요일, 월요일, 공휴일 및 기타 지정일 휴관

예약문의 전화 031-684-2231 / 온라인 경기공유서비스 www.share.gg.go.kr

* 최대 월 8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영리목적의 강좌나 행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디어실, 스튜디오



공유주방



커뮤니티홀



공유공방



공유오피스



회의실



평택시민의 공간1호 개관 100일 행사 '이야기를 담은 공간'



공유주방



공유공방 재능나눔 모임

발레공연이 있는 마을잔치

100일 동안 안중지역에서만 총 34곳의 단체 및 모임이 이용하였고 참여 시민 수는 1,500여 명에 이르렀다. 청소년 꿈의 학교가 이용이 가장 많고 지역의 각종 모임이나 행사를 위해 주로 이용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입시를 위한 공부뿐만 아니라 꿈을 키워가는 청소년들의 배움, 주민들의 봉사, 나눔,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들이었다. 시민의 공간 100일에 담긴 이야기들은 그래서 '꿈꾸는 청소년', '참여하는 시민', '함께 돌보는 이웃', '즐거운 동네'였다. 아이들이 발레 공연을 하고 관현악 연주로 트로트 반주를 하면 어른들이 나와서 노래를 불렀다.

시끌벅적한 분위기에서 공연을 하자니 난색을 표하시던 발레 선생님, 그러나 무대 위의 청소년 발레리나들도 바라보는 관객도 서로 처음 경험하는 이 낯설지만 아름다운 경험에 행복했다. 발레를 난생처음 직접 보았어~ 동네의 이런 무대는 처음이야~ 발레 하는 아이들이 신기했고 '아모레파티'를 관현악으로 반주해

주는 아이들이 기특했다. 동네에 비로소 아이들이 보이고 모이면 웃을 일이 많아졌다. 그렇게 백일잔치를 하고 나니 이제 비로소 '시민의 공간'이 꼭 필요한 시민들에 의해 잘 살아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돌아보니 '시민의 공간'을 위한 특별한 그 무엇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다. 현재 평택시는 공공공간에 대한 시민 눈높이, 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기존 공간의 리뉴얼 및 추진되거나 예정되어 있는 공공건축이 무척 활발하다. 한정된 자원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독립된 정책도 필요하지만 시민의 요구에 따른 변화를 함께 모색해야 할 도서관, 행정복지센터, 평생학습센터 등의 공간을 보다 시민 친화적이고 개방된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시민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이 중요한 이유는 주민들의 마음은 보이지 않아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공감의 우물은 깊은 곳에 있고 이를 퍼 올리기 위해서는 공감을 모아가는 '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사별**



10년
의
민화작가

행복해지기 위해 그리는 그림

2006년 초 인사동 갤러리에서 마주한 현대민화는 다채로운 색감과 화풍으로 당시 민화를 잘 모르던 저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후 저는 예범 박수학 선생님께 민화를 배우고, 전국공모전에서 3년 연속 본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행복해지기 위해 그리는 그림'이라는 저만의 기조로 민화를 평택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화실을 연 지 13년째 민화인을 양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 전통재 현민화가 중심이었던 저의 작품들은 현재는 창작민화로 중심을 옮겨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화란 조선 후기 우리 선조들의 삶 곳곳을 장식했던 아름다운 전통 그림으로서 소박한 소망과 염원을 담은 그림입니다. 한국인 미술정서에 가장 부리에 해당하는 미술이자, 나와 이웃의 행복을 위해 존재해왔으며, 그려지는 모든 사물에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길상화복을 바라는 소망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감상용인 동시에 실용적인 그림입니다. 민화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바랍니다.



농무(農舞)(179x148, 순지, 혼합채색)

2020년 말, 경기도 박물관 재개관 기념 특별전 "경기별곡 민화, 경기를 노래하다"에 평택을 대표하여 참가했습니다. 저는 평택을 알리기 위해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 11-2호인 평택농악을 민화 속에 표현했습니다. 평택농악은 평택 지역을 기반으로 마을농악의 지신밟기와 두레굿, 전문 연희패의 난장굿, 촌걸립, 절걸립 등을 연행하는 연희입니다. 세시풍속놀이로서 농악이 향유되었던 이유와 민화가 사랑 받으며 이어져 온 이유는 둘 모두 민생의 안녕과 풍년, 행복을 기원한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한 공통점을 착안해 두 주제를 하나의 작품에 결합했습니다. 민화에서 부귀를 상징하는 모란꽃과 농악의 상징인 상모의 초리를 화면 가득 채워서 역동적인 어울림을 표현하고,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며 그렸던 작품 '농무'입니다.



무궁화 꽃이 피던 날 (84x92, 캠퍼스, 아크릴)

조각보가 날리는 언덕 위에는 무궁화가 흐드러져 있고, 무궁화 주위로 물까치들이 모여드는 장면입니다. 물까치는 가족애가 강한 종으로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무궁화와 함께 배치하여 끈끈하고 강인한 가족의 이상적인 모습을 제시합니다.



존재 (106x74, 순지, 혼합채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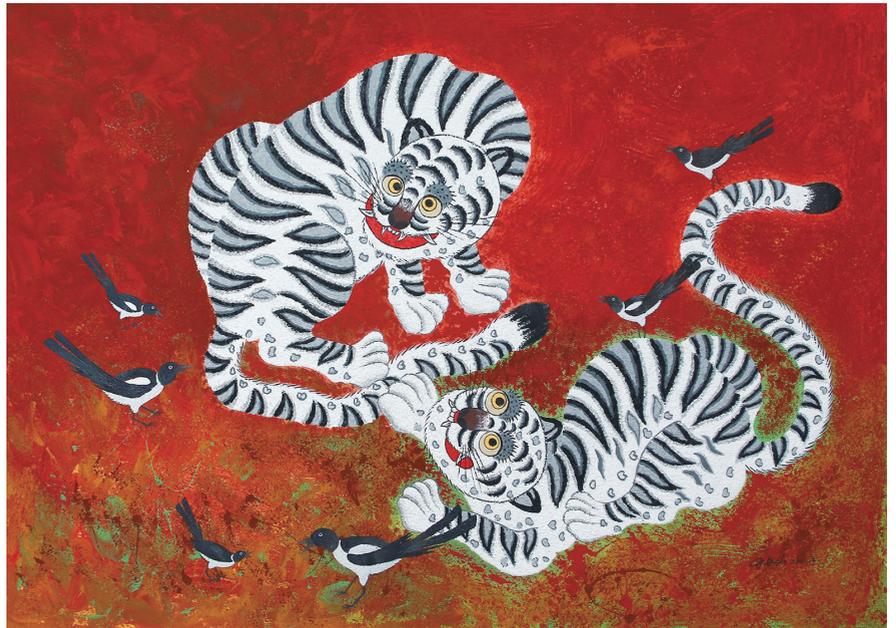
서로 다른 생각들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 다원화, 다문화 시대에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기를 바라며 초현실주의 기법을 활용했습니다.





범과 같이1 (123x88, 순지, 아크릴, 모래)

노을지는 풍경 속에서 까치와 호랑이가 한 데 어울려 놀고 있습니다. 호랑이의 흰 털은 모래를 이용해 거친 질감으로 표현하였고, 백호와 대비되는 진한 붉은색 배경은 평화롭고 목가적인 느낌을 줍니다. 길운을 상징하는 두 동물이 북을 불러 들이는 작품입니다.



나의 숲 (94x128, 순지, 혼합채색)

산골마을에 살며 나무 숲에서 놀던 유년시절의 기억들과 꿈에서 본 숲을 몽환적으로 표현한 나의 이야기입니다. **소사별**

시간 그리고 도시와 재생 평택

노희철 평택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신평_신평, 청년로컬토크쇼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매년 지역사회에서 도시재생이 큰 이슈가 되어 공모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주민과 행정 그리고 전문가가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각계각층 그리고 다양한 집단이 관심을 갖고 추진해온 도시재생사업은 무엇일까?

본인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공간과 활동을 만들어내는 복합적 이론'으로 도시재생을 정의한다. 이러한 차

원에서 도시재생사업은 물리적·경제적 향상, 문화의 다양성, 그리고 주민 활동 등을 이뤄내기 위한 복합화 된 사업으로 쓰이고 있다.

우리는 다른 지자체와는 다르게 다문화를 수용하고 활성화해야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 경제적 활동과 문화에 초점을 두어 원도심을 재생해야 하는 지역, 그리고 주민의 주거공간을 개선하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지역 등 다양한 방법의 재생사업이 필요한 지역들을 품고 있다.





먼저,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여 활성화를 꾀하는 지역으로 안정과 신장이 있다. 두 지역의 특성을 잠시 살펴보면 미군기지로 인해 다양한 경제활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흥하지 못해 원도심으로 낙인이 찍힌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그것은 다양성의 존중보다 한계층에 초점이 맞춰진 활동 그리고 각종 규제로 인한 개발 부재, 마지막으로 활성화 되지 않음에도 올라가는 부동산 가치 향상이다. 안정지역과 신장지역 주민의 경제적 활동은 단일계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작 그곳에 정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활동이 결여되어 지역의 정체성 확립에 어

려움이 있었으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각종규제에 부딪쳐 도심활성화를 위한 민간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고 부동산 유행사업(부동산 정책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에 치중되어 부동산 가치가 향상되어 정책사업 투입에 어려움이 발생됨에 따라 노후화 된 기반시설은 가속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정과 신장지역의 도시 재생은 문화의 다양성과 주민공동체 회복을 사업화하고, 이를 수용하고 기반이 되어줄 거점공간을 마련하는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정_문화공동체 프로그램(요가)



신장_집수리 아카데미 활동



신평_비긴 어게인 신평



신장2동 도시재생한마당

다음으로 경제적 활동과 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으로 신평이 있다. 신평 도시재생사업지는 평택역의 이점과 다양한 연령의 유동인구 그리고 활동공간으로 이뤄져 있으나, 신도시 개발압력과 상업 활동 이등으로 상권이 약화되어 원도심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상권 강화와 다양한 로컬 커뮤니티 강화를 위해 행정과 주민 그리고 상인 단체가 하나가 되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다. 최근 신평 도시재생사업지는 '신평사담'이라는 주민공동이용시

설을 준공하여 다양한 전시활동과 토크쇼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도시재생주민협의체 일부 회원은 도시재생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평지역관리 협동조합을 창립하였다. 도시재생의 목적에 맞춰 주민공동이용시설이 거점이 되어 주민 조직이 이를 활성화 시키고, 이를 발판삼아 원도심이 활성화 된다면 선진화된 도시재생사업이 아니라도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 도시재생사업은 성공한 사업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주거 공간 개선과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으로 서정과 신장2동의 사업이 있다. 새뜰마을사업이라는 도시재생과 조금 다른 유형의 서정 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주거환경 개선에 초점을 둔 신장2동 도시재생사업으로 나뉜다.

서정지역은 지역여건상 각종 규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며, 인근지역에 고덕국제신도시가 위치해 있어 신도시 개발에 따른 소외지역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신장2동도 서정 지역과 마찬가지로 각종 규제를 받는 지역이며, 신장동과 다르게 지역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특별한 콘텐츠가

부재한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두 지역은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과 정주환경 개선이라는 차원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정지역은 집수리지원사업, 마을안길정비사업, 기반시설(도로)의 환경 개선사업 등 주민에게 피부로 와 닿는 정주환경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신장2동 지역은 서정지역과 비슷한 물리적 환경을 갖고 있어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집수리지원사업, 골목길정비사업, 동네정원사업 등 서정지역과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재생은 무엇인가?

우리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수 없이 해왔다. 지금까지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은 도시재생이 아니라고 저자는 답한다. 공모사업은 도시재생을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마중물사업일 뿐이기 때문이다. 마중물 사업은 도시재생을 이끌어내기 위함이고,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가는 기반사업이다. 그렇다면 도시재생은 언제부터인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도시재생은 마중물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거점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스스로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발판삼아 다양한 활동이 이뤄질 수 있을 시점부터 도시재생은 시작된다. 하지만 정책은 투자의 욕구를 성과로 평가하고, 주민 교육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여 시작

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업으로 저평가 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역사를 갖고 있다. 그 역사는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든 알고 있을 것이다. 도시에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활동하는 공간이 있으며, 공간들이 모여 하나의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 이렇듯 오랜 시간과 활동들이 모여졌을 때 우리는 그 도시의 역사로 만들어 낸다. 도시재생은 그 도시에서 잃어버린 활동과 시간 그리고 사람을 다시 만들어 내기 위해 시작하는 것이다. 오랜 역사를 갖춘 도시일수록 도시재생의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시간이 만들어낸 도시처럼 재생 또한 시간이 필요하다. **소사별**



김찬규 구술조사



유재호 구술조사



이계석 구술조사

2021 평택 향토사 구술 및 사료조사 사업

그때 그 시절 평택을 말하다

평택 향토사 구술 및 사료조사팀

일제강점기~해방 전 후 평택에서 생활하면서 사회·생활사적으로 근·현대 평택의 변화상을 몸소 체험해왔던 세대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겪어왔던 변화와 격동의 시기를 기록하는 ‘메모리얼 사업’이 시급해지고 있다. 이에 평택학연구소에서는 연구위원 및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평택 향토사 구술조사 사업을 시작하였다. 연구위원 및 자문위원 2인과 기록보조원이 한 팀을 구성하여, 평택지역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온 16명의 구술을 받고 사료 수집 활동을 진행하였다. 소사별을 통해 조사된 구술 내용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정태호 구술조사



한인희 구술조사



신권식 구술조사

목욕탕으로 시작한 영천관광호텔

정태호

(1933년생 / 영천관광호텔 대표이사)



영천관광호텔(2012)



영천탕의 모태가 된 마을 공동우물(1956)

영천강 호텔 뿌리인 목욕탕은 우물 옆에 한 70평을 사가지고 거기다 1963년에 목욕탕을, 나무 목조건물로다가 지었어. 남자, 여자목욕탕 30평씩을 만들었지. 양색시가 많을 때여서 여자들이 바글바글 했지.

목욕탕은 잘 되는데 내가 관리를 잘못하는 거지. 이제 보일러가 나쁘고 보일러가 물을 많이 끓여야 하잖아. 물을 많이 끓

여야 물을 식혀 쓰잖아. 그런데 보일러가 그때 국산 보일러가 없을 때야. 일본 애들이 쓰다 버린 걸 갖다가 썼다고 그러다 나중에 새로 만들었어.

번 돈으로 목욕탕을 더 크게 짓고 몇 년 후에 일반 호텔도 만들었다가 나중에 7층의 관광호텔까지 만들게 된거지. 미군들이 주 고객이었어.



오산공군기지 건설 작업중인 미군들(1952)



송탄시 미군부대 주변모습(1989)

6·25전쟁의 기억과 송탄

이정우

(1940년생 / 제1대 송탄문화원장)

미군이 들어온 당시에 어렵듯이 다 생각이 나죠. 오산공군기지 정문 앞에 그때는 밤나무 숲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미군 공병대가 와가지고 트럭 대다가 미는 것까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6·25 때는 이제 이 진위천에 중공군이 와가지고 방위성이 돼가지고 미국 탱크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서 포 쏘는 것도 기억이 나고 그렇습니다.

전쟁 중에 저 미군 기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립이 됐고, 1953년도 시점이 되서는 이북의 피란민들이 여기 37도선 이북은 못 가게 정부에서 막아가지고 이 서쪽에 있는 황해도의 피난민들이 전부 평택에 정착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난민들 또 전국의 실업자들이 살기 위해서 송탄을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60년대, 70년대 상당히 활성화가 됐죠.

포승에 있었던 ‘무수산’을 기억하시나요?

이계석 (1943년생 / 제1대 평택군문화원장)

“우리 집에 뒷산이 ‘무수산’이라고 아주 유명한 산이에요. 지금은 뭐 서해고속도로가 나는 바람에 반쪽이 나고 또 훼손됐지만, 그때만 해도 무수산이라고 아주 포승에서 꽤 알아주는 높은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 너머에 바다가 있었고 아주 큰 염전이 있었습니다.”



서정리국민학교 졸업사진

그때 그 시절 놀이

한인희 (1941년생 / 민주평통 평택시협의회회장)

“6·25 전쟁이 난 후라 이 서정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근처에 이렇게 열차 같은 거 파괴되고 탄약 뭐 총알 같은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병에다가 소금을 넣고 휘발유를 넣고 그 총알을 넣어 가지고 동네끼리 싸웠어요. 이걸 집어 던지면 그렇게 겁 없는 거지 지금 같으면 그런 짓 못 하지 뭐~”

또 조그마한 산에 가서는 그 수수 그거 뜯어가지고 거북놀이 옷도 만들고 마을에 다니면서 거북놀이도 하고 가정을 다니면서 음식 같은 것도 얻어먹고 그랬지.”

현덕면 바닷가 생활

인효환 (1949년생 / 평택호관광협회회장)

“뱅어가 잡힌걸 보니 아산만 일대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손꼽히는 청정해역이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아산만 일대는 고기들이 또 고급 어종이요. 민어, 농어, 준치 이런 걸로다가 많이 나왔고, 송어는 어란만 빼서 채취했고 거의 다 안 먹는 수준이었어요.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망둥어 뭐 이런 조그만 게 같은 거는 쳐다보지도 않았던게요.”

65년도 이전에는 백합이 아주 유명해가지고 저희 동네 저희 아버님도 포함해서 어촌계를 엮어가지고 백합 양식을 했는데, 그 자리가 지금 평택항 매립지예요. 우리 중학교 댕기고 이럴 때는 밤에 절도 사건도 많이 나고 하니까 경비를 다닌 기억이 납니다.”



안일중학교 제1회 졸업생

정수일 (1942년생 / 평택 3·1독립운동선양회장)

“안중에 안중중학교는 있는데 그건 사립이야. 그런데 지역의 유지님들이 우리도 공립학교를 하나 뒀서 자녀들을 좀 교육을 잘 시키자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를 설립했는데 현덕면, 포승면, 오성면, 청북면 이 4개 면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학교를 세우겠다고 해서 한 거야. 그런데 공립학교를 세우려고 서는 시작을 하다 보니까 재원이 지원하는 재원이 적잖아. 그래서 우리를 제2의 그 학생을 뽑은 거야. 학교를 안 짓고 안중초등학교 교

실을 빌려가지고 오전에는 학생이 초등학교 학생이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런데 교실이 있어야 교육을 하지 미군 부대에서 쓰는 천막 여덟 개를 얻어 가지고 우리 1회, 2회는 노무자지 학교에서 공부한 기억이 없어. 그냥 맨날 바람 심하게 불고 뭘 눈 많이 오면 전부 나와가지고 천막을 이렇게 들고 이쪽으로 놓고 저쪽으로 놓고 그렇게 시작한 게 안일 중·고등학교야”



한땀한땀 노력이 담긴 웃다리문화촌

김은호

(1950년생 / 제12~13대 평택문화원장)



“웃다리문화촌 TF팀장을 하면서 진짜 그때는 열성을 가지고 했죠. 내가 문화원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기여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화합하면서 같이 회원들하고 하루하루씩 바닥 다 긁고 붙이면서 변해가는 웃다리 문화촌의 모습을 보는거죠.

웃다리문화촌에서 기억이 많이 나는 게 금각분교가 폐교인 상

태로 오래 있어서 워낙 질었고 들어가는 입구도 뭐하고... 굉장히 열악했죠. 거기를 콘크리트를 좀 이만큼 바르면 우리가 작업하기도 좋고 나무 심기도 좋을 거 같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한 사람이 “그러면 5만 원씩 낼까요? 10만 원씩 낼까요?” 하니까 금방 그 자리에서 2~300만 원이 딱 걷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구리로 벽을 툭 쳐버리고 편하게 콘크리트를 발랐지요. **소사별**”

사라지기 전, 그리움을 남기다

신의주의 꿈, 신장동에 펼치다

- 피난민 김이현, 앞서 간 사업가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조사팀

김이현(1921~1976)은 평안북도 신의주가 고향이다. 그의 부친 김석현은 한국개신교의 대표적 인물인 한경직목사와 깊게 교류하던 인물로 신의주에서 함께 월남했다. 김이현은 해방전후에는 중국대련에서 자동차부품업을 하던 큰아버지 밑에서 일을 했다. 1947년 신의주에서 박영도와 결혼하고 월남하여 잠시 서울에 머물렀다. 어느 날 명동서 활동하던 친구 정팔이로부터 경기도 평택에 미군기지가 건설되는데 경기가 좋다는 정보를 듣게 된다. 김이현은 1952년 건설중이던 오산미공군기지 일대를 둘러보고 가족과 함께 같은 해 미군부대 정문 앞(평택군 송탄면 신장동 302번지)에 자리를 잡게 된다.



당시 첨단 기기인 라디오, 카메라 판매와 동방사진뉴스 평택지사를 겸하던 승리사. 아내와 아들과 함께한 김이현(1954년)

찰칵! 마음을 찌고 달려를 담다

그가 처음 손댔던 사업은 '승리사'라는 라디오, 카메라샵이었다. 그 당시 라디오와 카메라는 미군들의 전유물이었고 일반인들은 엄두도 못 내던 고가의 물건이었다. 1953년부터 1960년대 초까지 김이현은 '승리사'를 통해 돈을 많이 벌었다. 고객은 주로 미군이었고 서울 카메라 수집상(나까마)들에게 승리사는 유명한 거래처였다. 또한 김이현은 1953년 창간한 '동방사진뉴스' 평택지사를 겸하게 된다. 이 매체는 명동에 본사를 둔 동방사진문화사(대표 김동근)에서 "보도사진의 촬영 제공뿐만 아니라 한국고유의 민족문화를 수록하여 대외에 소개하고 대내 계몽선전에 기여하고, 주한 유엔군 및 우방제국에 대하여 사진문화를 통한 국제친선 및 문화교류를 촉진시키고, 해외문화를 사진을 통해 도입하여 국내 문화 진전에 공헌하고자" 설립한 언론사였다. '동방사진뉴스' 평택지사 설립은 서울의 지인들과 교류하며 얻은 지식과 정보를 지역과 의미 있게 나누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56년 폐간되면서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개업초기 승리사, 미군을 뒤로하고 장남 장녀와 함께(1953년)



큰 딸 승주와 아들 승남이 설날 놀려온 아이들과 승리사 앞에서 찰칵~!(1953)



1968년 김이현의 부친 칠순잔치. 가운데 부친 김석현. 그 옆에 안경끼신분 한경직목사



미키마우스와 스냏이란 글자가 눈에 띄는 VICTORY SHOP 입간판. 서있는 아이는 둘째 딸 승미(1956)

비비선에 사랑을 심고

1961년 5.16군사혁명이후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마을마다 유선방송 공청 스피커가 대량으로 설치된다. 이때 김이현도 송탄지역 유선방송사업권을 떠난다. 유선방송은 송전하는 비비선 외출을 스피커통에 연결하고 다른 한줄을 땅에 묻으면 라디오 소리가 나온다. 유선방송을 마을마다 보급하기 위해 전봇대와 나무기둥에 설치하는 가설반과 수금반 등 20여명의 직원을 두고 사업을 했다. 그러나 점점 라디오 보급률이 늘어나면서 큰 재미를 보진 못하고 정리한다.



신장동 정문 앞에서 아들에게 카메라를 들려주고(1953)



1남 3녀를 둔 김이현 가족사진

꿈처럼 바람처럼

김이현은 격동의 해방공간에서 신의주와 대련을 거쳐 한국전쟁 참화 속에서 삭고개(송탄)기지촌에 정착하여 열심히 살다간 사업가였다. 라디오, 카메라 판매와 DP점, 뉴스신문사, 유선방송 등 사업적으로 손댄던 일들이 오래 지속되는 못했지만 휴전 후 복구 과정에서 남보다 앞서간 안목과 수완으로 기지촌에 자리 잡은 꿈 많은 사업가 중 한명이었다.

그는 1976년 겨울, 정문 앞 다방에서 차를 마시다 뇌졸중으로 쓰러져 56세를 일기로 파란만장한 삶을 거두었다. 슬하에 1남 3녀를 남기고.. **소사벌**

지역문화 열정이 담긴 시간

2022 평택시 지역문화 전문가 워크숍 후기

김은희 평택시 SNS 시민기자단

평택시 지역문화 전문가 워크숍이 2022년 7월 7일(목)부터 8일(금)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평택 지역자원과 콘텐츠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전라북도 군산시와 익산시, 충청남도 논산시를 방문했습니다. 워크숍의 목적은 국내 모범적인 지역 문화예술 운영사례를 학습하고, 평택지역

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지역문화예술발전에 적용시키기 위함입니다. 저는 평택시 SNS 시민기자단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의 고향이자 아이들의 고향인 평택에서 35년째 살며 나름 평택을 사랑하는 1인으로 자부하는 저에게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1일차

차담회

군산
경암동 철길마을

강의

해설이
있는 지역탐방
(군산근대건축관,
동국사 등)

첫 번째 일정은 **차담회**였습니다.

박성복 평택학연구소장님이 키워드를 한 장씩 주셨고, 한 사람씩 자신의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와 키워드의 구절과 해석을 읽어주고 자신이 생각하는 키워드를 발표하며 자연스러운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찌나 알차게 기획하셨는지 군산 경암동 철길마을에 도착할 때까지 2시간가량 진행되었습니다. 차담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네트워킹이 이루어져 서로 알아가고, 네트워킹을 구축하여 서로 협업하는 문화예술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일정은 **군산 경암동 철길마을**이었습니다.

평택시 신장동에도 철길공원이 있어서 모두 관심을 갖고 철길을 걸었습니다. 평택시 신장동 철길공원도 많은 사람이 찾아주길 바라며 이곳의 철길마을을 평택시에 접목할 부분이 있을까 생각하며 걸어보았습니다.

군산 경암동 철길마을(달고나 만들기)

세 번째 일정은 원봉연 군산문화원 대의원의 '국제해양물류도시 군산이 걸어진 길-군산 역사와 문화의 특성을 조명', 박성복 평택연구소장의 '공모야! 노을자-평택의 자원과 콘텐츠를 활용한 공모 기획서 작성하기'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강의를 통해 군산의 고대사회~현대사회까지의 역사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모 기획서 작성하기는 문화예술 운영단체에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원봉연 군산문화원 대의원 '국제해양물류도시 군산이 걸어진 길'



네 번째 일정은 **해설이 있는 지역탐방**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탐방을 통해 군산과 평택은 향이 있고, 미 공군부대가 있어 닳았다는 박성복 평택학연 구소장님의 말에 동감했으며, 군산시 해설사 덕분에 군산 지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해설이 있는 지역탐방(진포해양테마공원)



2일차

국립
익산박물관

논산
KT&G
상상마당

첫 번째 일정은 **국립익산박물관** 관람이었습니다.

익산시는 백제 제30대 왕 무왕의 왕도이기도 합니다. 해설사의 해설을 들으며 국립익산박물관도 관람했습니다. 국립익산박물관은 2020년 1월에 문을 연 우리나라 13번째 국립박물관이며, 미륵사지와 가깝게 있어서 미륵사지 경관을 해치지 않기 위해 지하에 박물관을 개관했다고 합니다.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문화재를 알차게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평택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있어 워크숍에 참가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람했습니다.



국립익산박물관 관람



마지막 일정은 **논산 KT&G 상상마당**입니다.

평택에 폐교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 한 옷다 리문화촌과 같이 KT&G 상상마당 또한 폐교를 청소년수련시설, 카페 등으로 이용한 곳입니다. 상상마당 첫 만남에서 상상의 세계가 마구 펼쳐질 것 같았습니다. 특히 건축물의 모습이 호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논산 KT&G 상상마당

최원학 부원장님이 '상상마당 논산'에 대해 설명해주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KT&G 상상마당은 예술적 상상을 키우고 세상과 만나고 함께 나누며 행복해지는 곳이라고 합니다. 평택에 무봉산수련원을 비롯해 청소년을 위한 여러 기관들이 있지만 KT&G 상상마당은 탐났습니다. 참가자들도 눈이 반짝반짝했습니다. 청소년의 마음으로 시설물과 체험실 등 다양한 공간을 천천히 둘러보며 평택에 접목할 부분을 살피며 탐방했습니다.

2022 평택시 지역문화 전문가 워크숍을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차담회를 가졌는데요. 워크숍을 다녀온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각각의 문화예술단체에서 오셨지만, 길과 마음은 한길이었습니니다. 문화예술의 평택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마음이지요.



1박 2일 동안 정말로 허투루 쓴 시간이 조금도 없이 차담회하고 견학하고 강의 듣고 토론하며 보냈습니다. 저에게는 좋은 인연을 만들어준 2022 평택시 지역문화 전문가 워크숍이었습니다. **소사별**



웃다리문화촌 2022 상반기 전시연계 프로그램

느끼고 즐기고 표현하라

신승희 웃다리문화촌 주임

웃다리문화촌은 지난 2021년 9월 《감각의 정원》기획展을 시작으로 전시기반 복합문화공간으로써 시민들에게 새롭게 다가가고 있다. 주말이면 웃다리문화촌 9개의 전시실은 연일 북적거린다.

전시는 작품을 관람한다는 본래의 역할 뿐 아니라 관객이 작가와 만나 소통하며 직접 참여하여 완성시키는 참여예술(Participatory Art)로 확장되고 있다.

미학과 예술 분야를 다룬 철학자 아놀드 베를리언트(Arnold Berleant)는 「참여예술은 직관적이고 능동적으로 예술 활동에 개입(participation)하는 것이 진정한 참여(engagement)이다.」며 참여의 미학을 강조한 바 있다.

시민들의 전시 문화수준 향상과 더불어 전시장에 방문하는 가족 단위 관람객의 경우,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창의적인 감각을 키울 수 있기를 바라며 미술관이나 갤러리를 방문한다.

국내 대표 미술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이나 서울시립미술관을 보면 어떻게 전시를 대중과 공유할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해오고 있으며 관람자의 문화예술적 요구와 기대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전시 또는 작품에 따른 다양한 교육, 학술, 워크숍과 같은 프로그램이 꾸준히 운영중이다.

뉴욕현대미술관(Museum of Modern Art)은 인지심리학을 토대로 개발한 VTS(Visual Thinking Strategy) 미술감상법을 활용하여 관람자가 참여예술의 과정 속에서 전시를 바라보고 느끼고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전시연계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웃다리문화촌 전시기획팀은 전시와 연계된 ‘관람자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써의 성장 뿐 아니라 관람자들이 더욱 쉽고 재미있게 전시를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관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활동을 권장하고, 작가와 관람자가 함께하는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적 유대감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2022년 5월, 6월 총 2회에 걸쳐 진행한 관람자 만족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관람자 참여형 전시가 관람형 전시(보기만 하는)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기준 : 만족도 100%)

전시명	선들의 공간展	옛 고양이 미술관 동화展	심심한 산책展	빛을 담은 이야기 상자展	옛교실	색,면,나비 그리고 모빌展
관람형태	참여형	참여형	관람형	관람형	재연형	관람형
만족도	58 %	71 %	29 %	42 %	50 %	42 %

웃다리문화촌은 2022년 상반기 9개의 전시실과 특정 장소 복도를 포함하여 2021년도부터 진행된 연장 전시를 포함한 총 18건의 전시를 운영하였다.

구분	주제/키워드	제목	부문	전시기간	전시실
1	관람자 참여형 전시	꿈의 예술(연장 전시)	회화, 설치	2021. 8. 20.~ 2022. 3. 31	SPACE1
2	관람자 참여형 전시	감각의 정원(연장 전시)	설치	2021. 8. 20.~ 2022. 3. 31.	SPACE2
3	나비주제 전시	생명의 울동(연장 전시)	조형	2021. 8. 20.~ 2022.1.30	SPACE8
4	공간특정적 전시	아름다운 평택시	사진	2022. 2. 5.~2. 27.	복도
5	지역작가 전시	광활한 대지 몽골 속으로	사진	2022. 1. 4.~1. 30.	SPACE3
6	지역작가 전시	베트남 황수피를 찾아서	사진	2022. 1. 4.~1. 30.	SPACE4
7	지역작가 전시	페인티드 글라스	유리조형	2022. 1. 4.~1. 30.	SPACE5-6
8	나비주제 전시	산림단지 조성을 위한 바람직한 증식법	드로잉, 조형, 아카이빙	2022. 2. 3.~3. 31.	SPACE8
9	기획전시	회화로서 그 기록 독도	회화	2022. 2. 5.~3. 13.	SPACE3-4
10	기획전시	아리랑 독도 생태연구와 영상 의 기록	수중사진, 학술(도서)	2022. 2. 5.~3. 13.	SPACE5
11	기획전시	사진으로서 그 기록 독도	사진	2022. 2. 5.~3. 13.	SPACE6
12	기획전시	독도야 영상 기록	영상	2022. 2. 5.~3. 13.	SPACE9
13	공간특정적 전시	심(心)·심(審)한 산책	설치	2022. 3. 8.~7. 31.	복도
14	상설전시	옛 교실	설치	2022. 3. 8.~12. 31.	SPACE7
15	기획전시 / 지역소장가 전시	김진수의 Camera Collection '빛을 담은 이야기 상자'	오브제	2022. 3. 19.~7. 24.	SPACE3-6
16	나비주제 전시 / 지역작가 전시	색, 면, 나비 그리고 모빌	회화, 설치	2022. 4. 2.~7. 31.	SPACE8
17	관람자 참여형 전시	선들의 공간	회화, 설치	2022. 4. 7.~8. 21.	SPACE1
18	관람자 참여형 전시	옛 고양이 미술관	도서	2022. 4. 7.~8. 21.	SPACE2

대부분의 전시에서 관람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전시연계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프로그램은 크게 관람자 참여형 전시와 전시연계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전시연계 워크숍으로 구분할 수 있다.

Section 1

관람자 참여형 전시

1. 《꿈의 예술》展 몬트킴/ 회화, 설치 / 2021. 8. 20. ~ 2022. 3. 31.

- ▶ 유명인·영웅·꽃 등 작가 자신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피상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며 시각적인 상황을 배제한 채 오로지 손과 마음을 의지하여 자유롭게 표현한 작품을 관람하고 이러한 작업방식을 관람자가 직접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 ▶ 《꿈의 예술》展 관람자 참여형 전시연계 프로그램의 체험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은 2022. 8. 4. ~ 11. 27. 웃다리문화촌 복도 유리창 공간에서 '몬트킴 《꿈의예술》 관람자 참여형 전시연계 프로그램 결과물》展'을 전시하고 있다.



2. 《감각의 정원》展 류승환 / 회화, 설치 / 2021. 8. 20. ~ 2022. 3. 31.

- ▶ 칠하다·바르다·부리다·자르다... 등 동사로 행위 할 수 있는 70가지의 드로잉 방법으로 준비되어진 재료들을 사용하여 소리에 반응하고 몸이 이끄는 대로 내면의 세계를 표현해 작가와 관람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전시이다.



3. 《선들의 공간》展 흥미희 / 회화, 설치 / 2022. 4. 7. ~ 8. 21.

- ▶ 《선들의 공간》展은 조형요소인 선들이 반복되면서 평면적이기도 하고 입체적이기도 한 공간들을 보여주는 전시이다. 선을 통하여 평면적 회화공간에서 입체적 회화공간 그리고 그 이상의 다차원 공간까지 상상해보면서 공간 안-밖을 넘나들며 즐겨보고, 손코팅지 위에 라인 테이핑을 하면서 참여자가 원하는 공간을 만들어보는 관람자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4. 《앗! 고양이 미술관 동화》展 / 보통의 나날 / 도서 / 2022. 4. 7. ~ 8. 21.

▶ 《앗! 고양이 미술관 동화》展은 김진영 큐레이터가 쓰고 지호진 작가가 그린 '앗! 고양이 미술관' 그림책을 각색한 전시이다. 원화와 스토리 영상으로 관람할 수 있으며,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공간인 미술관의 특색과 역할을 알고, 미술관에서의 관람 예절과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재미있게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된 전시이다. '화가가 되어보자'와 '큐레이터가 되어보자'에 따른 참여를 통해 직접 그린 그림을 전시하고, 벽에 작품을 걸고 명제표와 작품보호선을 설치하는 등 큐레이터 역할을 체험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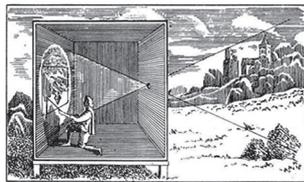


Section 2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1. 《독도작가 4인의 개인》展

이정재, 김지현, 이만욱, 김동식 / 회화, 사진, 영상 / 2022. 2. 5. ~ 3. 13.

- ① 독도야 ○○해! : 작가가 직접 드로잉한 독도 이미지 위에 독도에게 하고 싶은 말 남기기
- ② 독도 컬러링 : 독도와 독도 해양생물 도안에 색칠하기
- ③ 독도 해양생물 클레이 만들기



2. 《김진수의 Camera Collection '빛을 담은 이야기 상자'》展 / 오브제 / 2022. 3. 19. ~ 7. 24.

- ① 옵스큐라체험 : 초기카메라의 이론을 알려주는 옵스큐라 체험관을 운영하여 빛을 통해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원리 체험
- ② 셀로판 카메라 만들기 : 종이 카메라에 컬러링하고 셀로판지를 붙여 완성한 후 웃다리문화촌의 공간을 담아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선정하여 전시장벽에 전시

Section 3 전시연계 워크숍



1. 《선들의 공간》展 워크숍

- ▶ 5/21(토) 초등학생 26명을 대상으로 작가와 함께 전시작품에 따른 회화적 요소로서의 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컬러 테이프를 이용하여 손코팅지 위에 공간을 만들어보는 작품활동을 진행하였다.



2. 《앗! 고양이 미술관》展 워크숍

- ▶ 6.11.(토) '앗! 고양이 미술관' 그림책의 작가 김진영 큐레이터와 함께 미술관의 전시를 즐길 수 있는 방법과 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보고 미술관의 직업 중 하나인 큐레이터가 되어 직접 전시를 만들어보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3. 《색, 면, 나비 그리고 모빌Ⅱ》展 시니어를 위한 현대민화 워크숍

- ▶ 유순덕 작가의 '색, 면, 나비 그리고 모빌Ⅱ'의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노년층의 적극적인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시니어를 위한 맞춤형 도슨트 투어와 민화컬러링을 진행 후 옛교실 게시판에 전시하였다.

앞서 언급한 관람자 만족도 설문조사의 결과로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시를 운영하면서 웃다리문화촌을 찾는 많은 시민들이 전시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미술관 또는 전시회에 대한 편견과 부담이 줄어들면서 보고, 즐기고, 느끼면서의 만족감이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웃다리문화촌 전시기획팀은 단지 SNS에 사진을 올리는 포토존, 체험장으로서의 공간만이 아니라 작품 관람과 함께 직접 문화예술을 체험 할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평택 시민의 문화 향유와 문화적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복합문화공간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웃다리문화촌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월요일은 휴관한다. 전시 관련 문의사항은 웃다리문화촌(031-667-0011)로 문의하면 된다. **소사별**



체험으로 알아본 미션! 용이동 청동기 유적

문화사업부

2022 평택학 문화교육체험 '미션! 용이동 청동기 유적을 알아보자'가 2022년 5월 14일(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용죽역사공원에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이 진행된 용죽역사공원은 고고학적 가치가 높은 용이동 청동기 유적을 보존하기 위해서 조성된 공원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평택에서 처음으로

선사시대를 주제로 이루어진 문화교육체험으로 미션을 통해 용이동 청동기 유적과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를 이해하는 문화교육 체험이다. 미션은 총5개로 이루어졌으며, 미션을 모두 수행하면 청동기 시대와 관련있는 도안으로 핀버튼을 만들 수 있게 하였다. 프로그램과 미션은 다음과 같다.

용죽역사공원





참가하기

접수처에서 접수를 하면 교재를 주고 동선을 알려준다.
교재에는 학교, 학년, 이름을 기입하고 용이동 청동기 유적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각 미션의 내용을 안내한다.



환호는 무엇일까요?

'환호'는 마을과 마을의 중요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에요.
특히 용이동유적 정상부에 만들어진 작은 환호는 제사공간을
보호하는 시설이었습니다.



미션!

몽죽공원 정상부에 가서 환호를 한 바퀴를
돌아보고 도장을 찍자



★ 미션성공도장 ★



잠은 어디에서 잤을까요?

청동기시대 사람들은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모양의 움집을 만들어
살았어요. 움집 내부에는 난방과 음식을 만들기 위해 불을 피우던
자리와 음식을 저장하기 위한 구멍이 등을 마련해두었습니다.



미션!

청동기 1호 주거지 찾아보고
반구대 암각화를 그려보자



★ 미션성공도장 ★

무엇을 먹었을까요?

청동기시대 사람들은 벼농사를 지어서 쌀을 먹었어요. 쌀 외에도 조, 수수, 콩 등 다양한 작물을 길렀답니다. 하지만 농사만으로는 배를 채울 수 없어 사냥도 하고 낚시도 하면서 부족한 배를 채웠어요.



미션! 갈판과 갈돌을 이용해 곡식을 갈아보자



★ 미션성공도장 ★



무엇을 입었을까요?

청동기시대 사람들은 동물의 가죽이나 털을 이용해 몸을 보호했어요. 옷을 만들기 위해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사용했답니다.



미션! 가락바퀴로 줄을 꼬아보자



★ 미션성공도장 ★





무엇을 사용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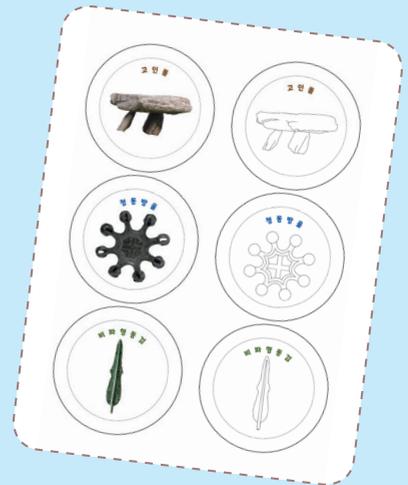
청동으로는 도구를 만들기 어렵고 재료가 귀해서 주로 돌이나 나무를 이용해 생활에 필요한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미션! 반달칼을 사용해 풀을 끊어보자



★ 미션성공도장 ★



미션 성공

미션을 모두 수행하면 청동기 관련 핀버튼 만들기. **소사벌**



평택문화 CAFE

평택시 관광자원 활성화에 대한 선진지 답사

평택문화원 친목위원회

사람은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 각기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같은 목적을 위해 모여 활동하는 모임이 친목회다. 평택문화원에도 평택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친목위원회가 있다. 친목위원회는 김희경 위원장과 강기중·배우학·이필욱·장종덕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평택문화원의 경조사, 문화탐방, 사업지원 등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특히 문화탐방은 평택의 관광활성화 목적으로 선진지 답사를 진행하고 있다.

- ① 2014년 평택문화원 임원 노을전망대 탐방
- ② 2017년 평택문화원 송년회
- ③ 2018년 평택문화원 추계문화탐방
- ④ 2019년 평택문화원 추계문화탐방



충북 괴산 '산막이 옛길'



산막이 옛길

2021년 11월에는 산막이 옛길을 갔다. 고향 마을 산모롱이길 산막이 옛길은 충북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사오랑 마을에서 산골마을인 산막이 마을까지 연결됐던 총 길이 10리의 옛길이다. 산막이 옛길을 따라 펼쳐지는 산과 물, 숲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괴산의 백미로 꼽을 수 있는 곳이다.



산막이 옛길 삼신바위

삼신바위는 괴산댐 건설 전에는 경치가 빼어나고 강물이 빠르게 흘러 살여울이라고 부르던 곳이다. 삼신(해, 달, 별의 신)이 내려와 목욕을 즐기다 날이 밝아 승천하지 못하고 삼신바위가 되었다고 한다. 옛날부터 아기를 점지하여 달라고 치성을 올렸다고 한다. 현재도 치성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은지 바위 위에 돌들이 잔뜩 쌓여져 있었다.

충남 보령 '청천호 둘레길'



청천호 둘레길



청천호 둘레길

2022년 4월 30일(토)에는 청천호 둘레길을 갔다. 본래 있던 청천호 호수공원을 이용해 3.92km 둘레길이 조성됐다. 경사가 완만하여 걷기에 수월했고, 청천호를 둘러싸고 있어 자연 친화적이었다. 둘레길 중간에는 쉼터와 전망대에서 청천호 풍광을 바라볼 수 있고, 대나무 숲길은 사진 촬영하기 좋은 곳이었으며, 숲 내음이 물씬 나는 힐링코스였다.

충북 단양 ‘제비봉, 만천하스카이워크’



제비봉

2022년 5월 28일(토)에는 제비봉, 만천하스카이워크를 갔다. 월악산의 제비봉 높이는 721m다. 장회나루에서 배를 타고 구담봉 방면에서 바라보면 바위능선이 충주호 쪽으로 마치 제비가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나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제비봉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제비봉

등산코스는 장회나루에 시작하여 나무계단과 능선 탐방로를 지나 오르면 ‘천국의 계단’이라고 불리는 철계단이 보였고, 조금 더 오르면 제비봉 정상이었다.

정상에 오르면 힘들었지만 산들 사이로 충주호가 흐르는 풍경이 아름다웠다.



만천하스카이워크

만천하스카이워크는 남한강 절벽 위에서 80~90m 수면 아래를 내려 볼 수 있다. 전망대로 가는 나선형 구간에서는 다각도로 풍광을 감상할 수 있고, 전망대에 보이는 산등성이 너무 드넓게 흐르는 남한강 경치가 아름다웠다. 전망대에 올라서면



시내 전경과 멀리 소백산 연화봉을 볼 수 있으며 말굽형의 만학천봉 전망대에 쓰리핑거(세 손가락)형태의 길이 15m, 폭 2m의 고강도 삼중 유리를 통해 발밑에 흐르는 남한강을 내려다보면 하늘을 걷는 듯한 느낌이었다.

경북 문경 ‘문경새재도립공원’



문경새재도립공원

2022년 7월 2일(토)에는 문경새재도립공원을 갔다. 새도 날아서 넘기 힘든 고개, 역새풀이 우거진 고개, 또는 하늘재와 이우리재 사이, 새로 된 고개 등의 뜻으로 새재라는 이름이 지어졌다. 임진왜란 이후, 이곳에 주흘관, 조곡관, 조령관 등 3개의 관문(사적 제147호)을 설치하고 국방의 요새로 삼았다. 문경읍에서 서북쪽으로 깊은 협곡을 따라 3.5km 가면 조선 속



문경새재도립공원

종 34년(1708년)에 쌓은 영남 제 1관문인 주흘관문에 이르며, 3km 더 가면 제 2관문인 조곡관, 이곳에서 3.5km 떨어진 곳에 제 3관문인 조령관이 있다. 이 일대를 1981년 도립공원으로 지정했으며 제1관문인 주흘관에서 제3관문인 조령관까지는 약 6.5km로 왕복 4시간 정도 걸리는 길이지만 길이 완만하여 가벼운 트레킹 코스로 인기라고 한다.

[출처-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

등산/트레킹 아웃도어 인구 변화 추이 (만 19세~79세, 단위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서는 2021년 10월 25일부터 11월 12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79세 이하 성인 남녀 1,800명을 대상으로 《2021년 등산·트레킹 국민의식 실태조사》를 했다. 이에 따르면 등산·트레킹 아웃도어 인구가 15년도(63%), 18년도(71%), 21년(77%)로 증가됐다고 한다. 이렇듯 요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들로 등산·트레킹의 관심을 갖고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친목위원회도 등산·트레킹을 다녀왔다. 평택에도 선진 답사지처럼 다양한 문화유적지와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다. 바로 경기옛길삼남길 9~10코스이다. 9코스는 오산맑음터공원-진위면사무소-진위향교-흰치고개쉼터-원군장군묘이다. 10코스는 옥관자정-통복천-동부공원-대동법시행기념비-안성천교이다. 특히 9코스는 흰치고개부터 태봉산 산길이 트레킹의 재미를 더해준다. 이 외에도 평택섬길, 해안오름길 등 다양한 트레킹 코스가 활용되어야 한다. **소사별**

[출처-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2021년 등산·트레킹 국민의식 실태조사' 보고서]

평택 막걸리 로드

평택문화원 직원 여름 워크숍

최희련 경영지원부 주임



요즘 막걸리가 MZ세대에서 유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건강관리에 관심이 높아진 MZ세대 사이에서는 건강(Healthy)과 기쁨(Pleasure)을 의미하는 영어단어의 합성어인 '헬시플레저(healthy pleasure)' 트렌드가 확산됐다. 이 트렌드는 등산, 달리기 등 신체단련뿐만 아니라 식단에도 반영돼 몸에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중에서 각 지역의 천연재료를 이용하여 인공감미료 없이 만들어지는 막걸리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했다.

2022년 6월 22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 따르면 2016년 이전까지 3000억원대에 그쳤던 국내 막걸리 소매시장 규모는 2019년 4500억원대로 급성장했다. aT는 지난해에는 시장 규모가 5000억원을 돌파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출처] 뉴시스 '5000억대로 커진 막걸리...MZ세대는 왜 '고급 술'로 볼까'

평택은 지명대로 땅은 평평하고, 못이 많은 곳이며 수량이 풍부하여 쌀농사가 적합하다. 그래서 평택은 쌀의 고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쌀이 유명하며, 요즘은 쌀을 이용한 막걸리가 활성화되고 있다. 평택문화원 직원들은 1년에 1~2회 직원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평택 막걸리 로드'라는 주제로 7월 20일에 워크숍을 진행했다.

Light, Fresh, Lively

호랑이배꼽®

호랑이배꼽은 화가이자 양조장 설립자인 이계송 대표는 외국에 교류가 많았으며 유럽의 농촌문화가 고급 문화, 아름다운 문화로 여겨지는 것을 평택에 녹이고 싶었다. 그래서 평택의 특산물인 쌀과 배를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평택을 기억하고, 가볍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제품화하는 과정에서 막걸리를 생각했다.

이계송 대표는 2008년에 제조면허를 취득하여 막걸리 연구와 동시에 브랜드명, 라벨 디자인을 직접 했다. '호랑이배꼽'이라는 이름은 한반도에 기상하는 호랑이의 모습과 닮았으며, 양조장이 있는 평택은 호랑이의 배꼽자리에 해당하여 호랑이배꼽이라고 지었다고 한다. 초창기 라벨은 전래동화에 나올 법한 디자인이었다면 지금 호랑이배꼽은 평택이 맛있는 술이 나오며, 귀여운 캐릭터가 있는 곳으로 이미지를 변화시키고자 꼬비로 활성화 되고 있다.

호랑이배꼽의 특징은 Light, Fresh, Lively다. 현재 나오는 술중에 가장 Light하고, 우리지역 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Fresh하며 은은한 배향이 풍겨 Lively하다. 처음 호랑이배꼽이 출시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낯설고 생소해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통합양조장 시절을 거쳤기 때문에 모든 막걸리가 비슷했다. 가족이 창조적인 직업을 갖고 있어 기존의 것을 답습하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세상에 던지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들이다. 그래서 막걸리는 걸쭉하고, 텁텁하며 두부김치와 전이랑 먹어야 한다는 기존 이미지에서 벗어나 깔끔한 맛에 나초, 카레 등 의외에 음식에도 어울리도록 만들었다.



호랑이배꼽 새로운 캐릭터 '꼬비'

호랑이배꼽 초창기 디자인



호랑이배꼽 전통소주 '소호'

호랑이배꼽의 술은 막걸리 2종과 전통소주 1종이다. 전통소주는 술을 담그면 10도 정도 때 술이 빚어지는 과정에서 도수를 낮추면 막걸리, 맑은 부분은 약주, 맑은 부분을 꺼내서 증류하면 증류식 소주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 전통소주라고 표현하고 있다.



오감으로 느끼는 중은술

2013년부터 시작된 농업회사법인 (주)중은술은 오성면에서 재배되는 평택쌀을 이용하여 우리조상들의 술인 전통발효주를 제조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역 관광체험을 연계하여 평택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막걸리제조 및 시음, 술 빛는 체험 등을 운영하고 있다.

중은술의 종류는 삼양주, 오양주, 끓여 만든 술이 있다.

삼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월 이상의 발효와 저온숙성을 거쳐 만든 '택이' · 오양주로 빚고 3개월 이상 발효와 숙성을 거친 깔끔한 '술그리다' · 홍국쌀 특유의 과일 향과 새콤달콤함이 인상적인 '술에쁘다'
오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 이상의 발효와 저온숙성을 거쳐 만든 '천비향 생주' · 탁주의 맑은 부분만을 여과하여 1년 이상 장기 숙성한 '천비향 약주'
끓여 만든 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양주의 맑은 술만을 따로 증류하여 3년 이상 숙성한 증류주인 '화주'



특히 가장 기억에 남는 천비향과 택이다. 천비향은 천년동안 내려오는 비밀이 담긴 향의 의미가 담긴 술이며, 2019년 청와대, 한아세안 정상회담 만찬주, 2019년 청와대 5당대표회의 식전주로 유명하다. 그리고 평택의 이야기가 많이 담긴 '택이'다. '택이'는 평택에 '택'을 따서 부드럽게 표현하여 이름을 지었고, 라벨 디자인은 안성천과 진위천이 만나 아산만으로 가는 평택지형으로 논, 쌀, 지도를 착안하여 디자인했다.

중은술은 2019년에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을맞이 양조장 습격사건' 행사를 진행하여 양조장투어, 술빛기 체험, 맛있는 음식과 술을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그 해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때에는 무궁화 오양주 '신시'를 출시했다. 앞으로도 평택과 우리나라를 알리는 노력을 할 예정이다.



1

냄비에 막걸리, 자색고구마가루를 넣고 저어준다.

3

병에 담아주면 완성된다

2

올리고당과 설탕도 넣고 농도가 진해질때까지 저어준다.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이색체험 '막걸리잼 만들기'

현재 중은술은 성인을 대상으로 술빛기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 체험을 개발하던 중 막걸리잼을 하게 되었다. 잼에 들어가는 막걸리는 술지게미로 탁주를 거르고 남은 찌꺼기이다. 술지게미로 만들어진 막걸리잼을 만들어보도록 하자!

재료 : 막걸리(술지게미), 올리고당, 설탕, 자색고구마가루, 냄비, 버너, 주걱

데일리브루어리는 2021년 11월에 설립되어 2022년 초부터 막걸리를 개발을 하여 6월에 판매를 시작한 신생 양조장이다. 김종인 대표는 고덕면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로서 평택이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되고 생산량이 높은 지역이라는 점을 활용하여 막걸리 양조장을 설립했다.



데일리브루어리 위치는 고덕 지식재산산업센터 6층에 위치해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지식재산산업센터를 선택한 이유는 전통주 제조가 가능하다는 것이 법령이 있고, 새 건물이기 때문에 입주할 때 공사 및 설비의 편의성 때문이다.



데일리브루어리 양조장

첫 제품인 Dear Midnight는 부재료 없이 쌀과 누룩을 기본으로 만든 12도의 순곡주이다. 12도인 이유는 도수는 소주와 같이 높은 도수는 부담스럽고, 낮은 도수는 물을 많이 넣어 풍부한 맛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와인의 도수에 맞췄다. 그리고 본연의 발효주의 맛을 내며 마셨을 때 부담이 적고 안주와도 잘 어울리는 12도로 정했다. Dear Midnight은 국산 우수 품종의 쌀을 수제 양조하여 만들어져 고도수의 깔끔한 맛이 특징이다.

Dear Midnight의 명칭은 '당신의 밤이 특별하도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12시는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내일을 기대하는 시간이기도 하여 우리 모두에게 가장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에 12시의 감정들을 한 병의 술에 담아내고 싶다는 뜻이다. 라벨지는 같은 제품에 2가지다. 하나의 디자인은 편지의 앞부분에 우리는 보내는 이에게 Dear를 붙여 쓰기 때문에 '나의 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스토리텔링을 염두 했다. 또 다른 디자인은 밤하늘의 구름 위를 표현했다. 차가운 밤빛과 달리 구름 위에서 바라본 밤하늘은 은은하게 달빛이 반사되어 마치 포근한 눈발과도 같은 느낌을 준다. 라벨에 신경을 쓰게 된 이유는 막걸리에서 느껴지는 편견들을 깨고, 젊고 세련된 느낌, 누구나 봤을 때 감성적이고 예뻐요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데일리브루어리만의 차별점은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며 점자 '막걸리 12도'의 점자를 새겼다. 국내 주류에서 점자를 넣은 사례가 없기에 점자를 넣어 의미를 부여했다.

현재 데일리브루어리는 막걸리 개발 및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막걸리에서 재료와 방법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맛이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평택의 로컬푸드매장 또는 평택 인근 지역의 농산물을 파악하여 부재료로 열대과일을 이용한 전통주를 기획하고 있다.





평택시 사회적 경제 청장년창업 오디션 최우수상 수상



평택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센터 서두물양조 개소

서두물양조는 서정동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 20여 명이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취지로 설립된 법인이다. 2021년 평택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진행된 '평택시 사회적경제 청·장년창업 오디션'에 서정역세권 도시재생주민협의체가 서두물(서쪽 우물이라는 이름을 가진 서정리의 옛 이름)을 활용해 지역 특색을 살린 서두물 양조장과 막걸리 콘텐츠를 개발하여 오디션에서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를 통해 지

원금과 창업교육을 받았으며, 마을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침체되어 있는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특색을 찾기 위해 주민협의체 주민들과 고민하던 중 역사가 깊은 약 120년 정도 된 서정우물과 평택지역 특산물 슈퍼오닝 쌀을 사용하여 주민의 건강을 위해 첨가물이 안 들어간 전통 방법으로 빚은 자연당 자연발효식 탁주(막걸리) 사업을 계획하게 됐다.

서두물양조장 제품



서두물양조의 제품명은 '오(5)호라'이다. 첫 번째 의미는 '오호라~! 바로 이 맛이 지'라는 감탄이 절로 나오는 술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5호라' 숫자 '5'와 어떤 순서와 차례를 나타내는 호(號)를 의미하는 것으로 1호~5호 즉 다섯 가지 시리즈의 술을 지칭한다. 막걸리의 종류는 서정역로오십오번길 도로명을 모티브로 한 오오막걸리 오색주이며, 주력상품으로는 순수 기본 백색의 막걸리와 홍국쌀로 빚은 빨간 탁주, 클로렐라쌀로 빚은 녹색 탁주, 노랑빛이 나는 약주와 그리고 증류식의 소주까지 총 다섯 가지의 오색주다.

앞으로 서두물양조는 전통주만 판매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역사·문화 전통주의 역사를 널리 알리기 위해 시민들에게 우리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전통주 교육도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공간을 개방하여 전통주 무료 시음회, 문화공연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워크숍을 다녀와서...

평택의 술빛는 사람들 / 황수근 문화사업부 학예연구사

평소 술을 좋아하는 나에게 평택의 양조장을 찾는 이번 워크숍이 매우 즐거운 경험이었다. 양조장에는 익어가는 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술 빛는 사람들도 있었다. 저마다의 이유로 술을 빙고 있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우리 문화와 평택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막걸리를 통해 그 애정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번 워크숍은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서두물양조장에서 채주과정 알아보기



좋은술에서 막걸리 역사 등 알아보기

와인과 견줄만한 우리나라 전통주, 막걸리 / 유연주 경영지원부 팀장

이번 워크숍을 통해 맛본 평택의 막걸리는 생각보다 가볍고 자연스러운 은은한 향과 맛이였다. 또한 목 넘김이 부드럽고, 막걸리 특유의 누룩냄새가 없이 깨끗한 맛으로 누구나 거부감 없이 쉽게 즐길 수 있는 맛이였다. 평소 나는 막걸리는 시원하게 들이키는 술이지 와인 같이 음미하면서 먹는 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워크숍을 통해 이러한 선입견이 사라졌다.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쌀의 맛으로 오랜 정성과 시간을 들여 만들어진 것을 보면서 막걸리는 와인에 비해 뒤떨어질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름 워크숍을 준비하며 / 최희련 경영지원부 주임

나는 워크숍을 진행하며 평택지역에 양조장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북부에 양조장이 새롭게 설립되어 무척 흥미로웠다. 데일리브루어리는 고덕신도시 고층에 위치하고 있어 시티뷰가 굉장히 아름다웠고, 주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그리고 서두물양조는 우물 井(정)을 문에 새긴 인테리어가 시야에 들어와서 공간의 궁금증을 자아냈고, 양조장을 흔쾌히 오픈해주시고 막걸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려주셔서 인상에 깊었다. 신생 양조장뿐만 아니라 평택지역 모든 양조장이 활성화되길 바란다.



좋은술에서 막걸리잼 만들기

막걸리잼을 들어 본 적이 있나요? / 강하늘 문화사업부 주임

청와대 만찬주로 이름을 알린 '좋은술'에서 막걸리잼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였다. 탁주를 거르고 남은 찌꺼기를 활용해 만드는 막걸리잼은 과일잼 만들기와는 다르게 빠른 시간 내에 완성되었고, 의외로 빵과 잘 어울렸다.

특별한 경험으로 기억될 막걸리잼 만들기도 좋았지만 잼을 만들면서 이예령 대표님의 좋은술에 대한 철학과 전통주를 바라보는 시각을 들을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 



2022년 평택문화원 기증유물

청북초등학교의 학교종

문화사업부

평택문화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억을 기부하세요' 지역관련 유물 기증캠페인을 펼쳐왔다. 2022년에는 신계수 기증자가 청북초등학교에서 사용하던 학교종을 기증해주셨다.



종 안쪽



자력



갱생

학교종은 전기가 없던 시절 교실과 교무실로 들어가는 문기둥의 짧은 끈에 매달려 있어서 수업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용도로 사용됐다. 이 학교종의 크기는 높이 23.5cm, 지름 26cm로 재질은 동합금으로 보인다. 상태는 종 끝에 약간의 균열이 있으나 매우 양호하고 사용한 흔적이 남아있다. 1940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농촌진흥회에서 기증한 것으로 보인다. 종의 중간 부분에 양각으로 자력갱생(自力更生)과 농촌진흥회(農村振興會)가 위아래로 새겨져 있다. **소사별**

평택문화원이 걸어온 길

평택문화원은

지역사회 개발과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1953년 개원하였으며,

여러 사업을 통하여 평택시민과 함께

지역문화 창조와 전통문화 계승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 ▶ **평택의 고유문화 개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 지역사의 조사·연구, 사료의 수집 및 보존
 - 문화 관련 자료수집·보존 및 보급
- ▶ **평택시 문화행사 개최**
- ▶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 ▶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 ▶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및 본원의 목적사업 등**

▶ 전통문화 발굴보존 사업

- 소사별단오제
- 평택시 정월대보름
-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 지역 전통문화 발굴 및 재연

▶ 웃다리문화촌 운영

- 전시기획·운영
- 전시관, 운동장, 세미나실 등 시설대관
- 체험학습 프로그램
- 축제 등 지역문화사업

▶ 지역사 연구 및 발간 사업

- 평택학연구소 운영
- 지역사 발간 및 연구사업
- 마을조사 사업
- 지역사 사료 수집

▶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

- 문화유산 활용사업
- 평택시티투어
- 평택학시민강좌

▶ 기타 지역문화예술 활동

-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활성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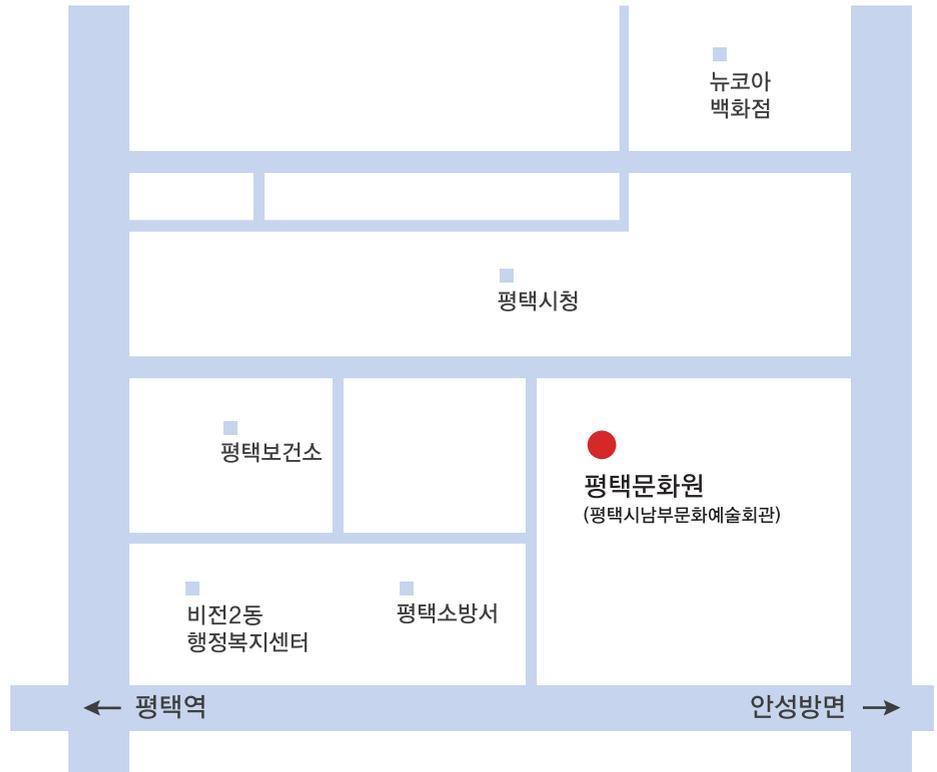
평택문화원의 연혁

2021년 12월 31일	평택문화원 68주년 《평택문화원사》 발간
2021년 12월 15일	평택문화원 창립 68주년 기념식(평택시청 대회의실)
2020년 9월 24일	웃다리문화촌 제7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금상 수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2020년 3월 1일	제14대 평택문화원장 이보선 취임
2018년 10월 23일	웃다리문화촌 2018 지역문화대표브랜드 우수상 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2015년 10월 9일	제22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최우수상 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2014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역문화 진흥표창(평택문화원장)
2014년 12월 19일	2014년 경기도 우수문화원상 수상
2014년 10월 17일	제10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대상 수상(경기도지사상)
2014년 10월 5일	제55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은상 수상(강원도지사상)
2013년 9월 28일	제19회 경기도민속예술제 대상 수상(경기도지사상)
2012년 3월 1일	제12~13대 평택문화원장 김은호 취임(재임 2012. 3. 1~2020. 2. 29)
2009년 10월 16일	대한민국문화훈장 수상(평택문화원장)
2007년 12월 31일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운영평가 표창 수상(문화부장관상)
2007년 10월 27일	2007 실버문화학교 프로그램 전국대상 수상(문화부장관상)
2006년 8월 1일	문화예술 체험학습장 웃다리문화촌 개관
2005년 3월 9일	평택시문화원을 평택문화원으로 명칭 변경
2003년 7월 28일	제10~11대 평택문화원장 오용원 취임(재임 2003. 7. 28~2012. 2. 29)
1998년 3월 6일	한국문화학교 지정
1995년 7월 27일	평택시문화원으로 통합(평택시문화원, 송탄문화원, 평택군문화원) 통합 초대원장, 제8~9대 평택시문화원장 유재호 취임(재임 1995. 7. 27~2003. 7. 27)
1994년 8월 24일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 문화체육부장관 제137호
1993년 10월 27일	사무국 이전(비전동 847 남부문화회관 내)
1993년 2월 26일	제7대 평택시문화원장 조중환 원장 취임(재임 1993. 2. 26~1995. 7. 26)
1989년 10월 11일	평택문화원을 평택시문화원으로 명칭 변경
1987년 8월 29일	문화공보부 승인(변경)
1986년 10월 16일	사무국 이전(합정동 294 평택시종합운동장 내)
1982년 12월 15일	제4~6대 평택군문화원장 김창복 원장 취임(재임 1982. 12. 15~1993. 7. 26)
1978년 2월 25일	제3대 평택문화원장 이주상 원장 취임(재임 1978. 2. 25~1982. 12. 14)
1972년 12월 11일	문화공보부 인가
1971년 2월 20일	평택문화원 창립총회, 제1~2대 평택문화원장 민형식(재임 1971. 2. 2~1978. 2. 24)
1953년	평택문화원 개원(설립자 장순영, 사설문화원)

평택문화원 임직원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원장	이보선	(주)주광에너지 대표이사	이 사	안도향	-
부원장	최창목	(주)대한공업사 대표이사		김진수	치아사랑 치과의원 원장
	오은영	평택대학교 실용음악학과 교수		박용민	로알안경원 대표
	강기종	(주)디앤디 대표이사		박기철	평택대학교 중국어과 교수
	신태식	(주)현대AVC 사장		이순녀	풍년떡푸드 대표
	이재덕	(주)삼보텔레콤 대표이사		황춘미	(주)케이피씨엠 대표
감사	박정순	고려인삼농원 대표		이보형	세무법인 세방 대표세무사
	배우학	베스트인슈&렌트카 대표		안광훈	하나농원 · 하나이벤트 대표
운영위원	윤석규	평택대학교 명예교수		이충원	농업회사법인 서두물양조(주) 대표
	박철순	(주)평택한냉 대표이사		유범동	캠프험프리스 수석 공보관
	김일강	(주)금풍 대표이사		김복남	여성농업인 경기도 연합회 정책 부회장
평택학연구소장	박성복	평택시사신문 사장		최시영	경기문화재단 이사
친목위원장	김희경	굿모닝챔버오케스트라 단장		김종구	평택가우디미술학원장
웃다리문화촌장	조혜경	前 평택대학교 교수		김종수	평택농악보존회 이수자
이 사	김미영	한삼인, 선일유통 대표		최승규	굿모닝병원 행정부원장
	조남규	(주)JNJ아트컨벤션 대표이사		이형범	복합문화공간 화수분 대표
	오중근	굿모닝병원 이사		당연직	평택시 국제문화국장
	한상희	(주)동양톨테크 대표이사		오민영	사무국장
	강길복	평택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유연주	경영지원부
	이승우	(주)하이오 대표이사		최희련	
	여운정	금호타이어 원곡대리점 대표	강수진		
	장종덕	장종덕한의원 원장	신송희		
	최창환	평택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박송이	문화사업부	
	김규동	(주)케이와이케이종합건설 대표이사	최치선		
	김성환	(주)에이치 코리아 대표이사	황수근		
	공서구	알리앙스 대표	김채민		
	이계문	서평택새마을금고 전무	정진명		
이 사	이 사	이 사	직 원	오민영	사무국장
				유연주	경영지원부
				최희련	
				강수진	
				신송희	
				박송이	문화사업부
				최치선	
				황수근	
				김채민	
				정진명	

평택문화원 오시는 길



대표전화 031.655.2002
주소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7 평택문화원

전송 031.654.8807
홈페이지 www.ptmunhwa.or.kr

제39호 소사별 원고 모집

평택의 종합문예지 《소사별》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시민여러분의 글과 작품을 접수 하고 있습니다.
채택된 작품은 커뮤니케이션위원회에서 검토 후 《소사별》에 실어 드립니다.

《소사별》에 작품과 글을 보내주실 분께

- 원고마감 : 2023년 2월 28일
- 원고 접수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7 평택문화원
전화 : 031.655.2002 전송 : 031.654.8807
이메일 : ptmhw@naver.com

- ※ 원고 접수 시 성명,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세요.
- ※ 원고, 의견을 보내주신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